

| SRI-기본-2019-04 |

수원시 일자리 정책 평가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ob Evaluation Model in Suwon

조용준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남일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2019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13-8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조용준. 2019. 「수원시 일자리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발생한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사전에 실업을 방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도록 재배치하고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등의 방법을 통하여 노동시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OECD 분류에 따르면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청년대책, 고용 보조금, 공공부문 채용, 장애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업 보조금, 조기퇴직 대책 등을 의미한다.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제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실현으로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추구한다.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산업특 성과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하며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사례 검토결과¹⁾ 저성장, 저물가 기조 경제상황, 인구감소, 고령화, 4차산업 시대 진입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도 지역 산업여건,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지방정부 일자리 우수사례 검토결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내 사례와 유사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실업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응용할 부분을 발췌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비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도구가 필요하다.

1)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개별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투입대비 산출, 양질의 일자리(지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조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목적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지수함수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이 함수의 산술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개별 사업의 값을 산술 평균 값으로 나누어 주면 수치가 발생하는데, 적을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준 값 산출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47개 사업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모두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평균값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2016~2018년까지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수행한 단위 사업의 수는 총 47개에 이르며, 기준 값은 1,000.29가 도출되었다. 일자리 효율성 지수 값은 0.23~3.2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모두 최상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설계, 효율성 평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오거나 현재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제고 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정책대상에 관한 원칙이고 사업의 성과 문제는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간 유기적 연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구축 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일자리 정책,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고용, 지방정부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수행체계	6
제2장 일자리 정책 관련 이론적 고찰	7
제1절 개념	9
제2절 추진 배경	11
제3절 필요성	12
제4절 범위	13
제5절 지역발전	17
제3장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분석	19
제1절 정책 및 사업 개요	21
1. 주무부서 현황	23
제2절 정책 및 사업 현황	25
1.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	25
2.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26
3.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창업	27
4.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29
5. 고교생 「꿈잡(Job)이 마스터」 육성	31
6. 브라보 5060+ 신중년 인생2모작 성공프로젝트	32
7.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33
8.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	34
9.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35
10.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38
11. 신중년 인생2모작 맞춤형 일자리	40

제4장 국내·외 일자리 정책 사례 분석	41
제1절 국내 사례	43
1. 광주광역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43
2. 부산광역시,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산단 내 청년근로자 전기차 임대 지원)」	48
3. 전라남도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	51
4. 울산광역시,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	55
5.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60
6.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64
7. 경상남도 김해시,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67
제2절 국외 사례	70
1. 미국, 「일자리 사업 WIRED」	70
2. 일본, 「오사카 지역취로지원사업」	72
3. 독일, 「베를린 노동(Berlin Arbeit) 사업」	73
4. 싱가포르, 「Skills Future Movement」	77
제3절 소결	80
제5장 일자리 평가 모형 설계	83
제1절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설계 개요	85
제2절 평가방법 및 대상 선정	87
1. 평가방법	87
2. 평가대상 선정	87
제3절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설계	92
제4절 평가결과	95
제5절 소결	100
제6장 결론 및 제언	103
제1절 결론	105
제2절 정책제언	109

표 차례

〈표 1-1〉 연구의 범위	5
〈표 2-1〉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	10
〈표 3-1〉 민선6기('14~'18)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22
〈표 3-2〉 일자리정책관 인력현황	23
〈표 3-3〉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 정책 추진실적	25
〈표 3-4〉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26
〈표 3-5〉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현황	27
〈표 3-6〉 창업지원센터 추진실적	27
〈표 3-7〉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29
〈표 3-8〉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추진실적	29
〈표 3-9〉 꿈잡(Job)이 마스터 사업 개요	31
〈표 3-10〉 꿈잡(Job)이 마스터 사업 추진 현황	31
〈표 3-11〉 수원시 신중년(5060) 세대 현황	32
〈표 3-12〉 신중년 인생2모작 성공프로젝트 추진실적	32
〈표 3-13〉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33
〈표 3-14〉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 추진실적	34
〈표 3-15〉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34
〈표 3-16〉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개요	35
〈표 3-17〉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실적	36
〈표 3-18〉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유형 및 사업 현황	36
〈표 3-19〉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성별·연령대별 현황	36
〈표 3-20〉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2018년)	37
〈표 3-21〉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38
〈표 3-22〉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38
〈표 3-23〉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 및 기간현황	39
〈표 3-24〉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현황	39

〈표 3-25〉 신중년 인생2모작 맞춤형 일자리 사업 현황	40
〈표 3-26〉 신중년 인생2모작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40
〈표 4-1〉 광주청년드림 사업(Dream) 개요	44
〈표 4-2〉 광주청년드림 사업(Dream) 내용	45
〈표 4-3〉 성과요약 및 2018년 계획	46
〈표 4-4〉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개요	49
〈표 4-5〉 총사업비 현황	49
〈표 4-6〉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내용	49
〈표 4-7〉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 추진체계	50
〈표 4-8〉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52
〈표 4-9〉 일자리 인프라 개선 사업 현황	53
〈표 4-10〉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 추진 계획	54
〈표 4-11〉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종사자수 현황	56
〈표 4-12〉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 사업개요	56
〈표 4-13〉 플랜트 분야 인력 지원	57
〈표 4-14〉 S-Oil(주) 일자리창출 MOU 체결	57
〈표 4-15〉 인생 3모작 정보센터 운영	58
〈표 4-16〉 전직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59
〈표 4-17〉 지역 내 특정분야 고숙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속운영	59
〈표 4-18〉 중소기업, 대기업, 이직 등 현황 비교	62
〈표 4-19〉 중소기업 인력 이직 시 비용 발생 현황	62
〈표 4-20〉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현황	63
〈표 4-21〉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사업내용	64
〈표 4-22〉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세부 사업내용	65
〈표 4-23〉 완주시 청년 지원 사업의 성과	66
〈표 4-24〉 김해시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내용	68
〈표 5-1〉 성과지표 선정 기준 및 원칙	86
〈표 5-2〉 2016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88
〈표 5-3〉 2017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90

〈표 5-4〉 2018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91
〈표 5-5〉 2016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95
〈표 5-6〉 2017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96
〈표 5-7〉 2018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97
〈표 5-8〉 분석기간 전체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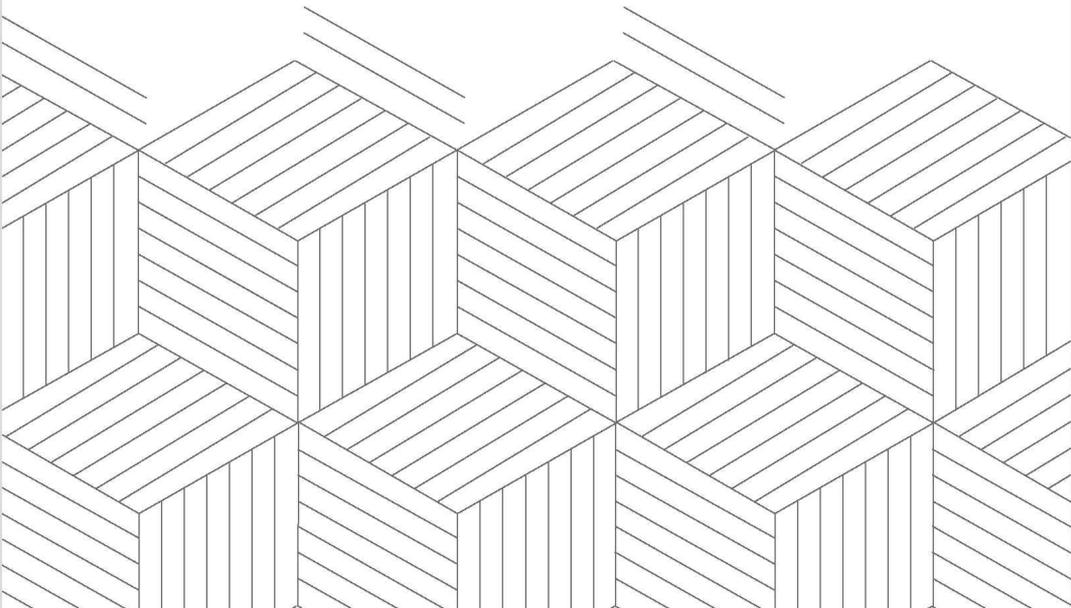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6
〈그림 2-1〉 일자리 창출사업의 분류	11
〈그림 2-2〉 지역산업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지역발전	17
〈그림 3-1〉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	22
〈그림 3-2〉 일자리정책관 조직도	23
〈그림 3-3〉 일자리정책관 비전과 전략	24
〈그림 3-3〉 새-일 공공 일자리 사업	26
〈그림 3-4〉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28
〈그림 3-5〉 수원시 일자리센터	30
〈그림 4-1〉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44
〈그림 4-2〉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운영체계	45
〈그림 4-3〉 광주청년드림(Dream) 온라인홍보 콘텐츠 및 온라인 소통 채널	47
〈그림 4-4〉 부산청춘드림카 선포식	51
〈그림 4-5〉 청춘창고(젊은 관광 핫플레이스) 개점 및 청년정책 비전 선포	53
〈그림 4-6〉 순천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54
〈그림 4-7〉 건설현장 일자리 연계 MOU 체결	56
〈그림 4-8〉 월평균 소득구간별 직장이동 비율 및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60
〈그림 4-9〉 청년 장기실업자, 구직 단념자 연도별 현황	61
〈그림 4-10〉 중소기업 기피 등 설문조사 현황	62
〈그림 4-11〉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65
〈그림 4-12〉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추진체계	66
〈그림 4-13〉 김해시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프로세스	69
〈그림 4-14〉 미국 오레곤주 WIRED사업 거버넌스 및 운영 체계	71
〈그림 4-15〉 일본 지역취로지원사업 체계도 : 이즈미시 사례	72

〈그림 4-16〉 싱가포르 Skills Future Movement 관련 정부 조직도	79
〈그림 5-1〉 가중치 1-type	93
〈그림 5-2〉 가중치 2-type	93
〈그림 5-3〉 가중치 3-type	9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수행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서도 최우선 사업으로 꼽히는 주요 사업이다. 실업의 증가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축적된 인적자원 가치의 감소, 노동시장 활력 둔화, 신규채용 감소에 따른 기업 내 세대 간 연결고리 단절 및 인력구성의 노령화 등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 및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비효율적인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효과의 미흡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조업 실적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자율성의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경제' 구현이 필요하다.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지역일 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시행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기획과 궤를 달리함으로써 그 실행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9년 170개)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을 통하여 창출한 지역 일자리 사업은 그 성과에 의구심이 든다(2018년 기준, 2.8조 원 투입).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자율성을 확대하여 신규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사업도 실행방법상 지역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이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획·설계단계부터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기획하고 사업운영의 전 과정을 지자체의 판단 및 집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수원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수원시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다.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및 지원방안의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외 일자리 정책의 사례 분석, 수원시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또한 수원시 일자리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수원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수원시 민선7기의 정책 흐름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정책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는 효율적 일자리 정책의 모형을 설계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분석 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수원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시행 중인 수원시 전역이다.

시간적 범위는 2016~2018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수행된 일자리 사업이 분석의 대상이다. 각종 통계 등 기초자료의 수집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한다.

내용적 범위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국내·외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분석,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평가, 지속가능한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발전방안 수립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모형개발을 통한 수원시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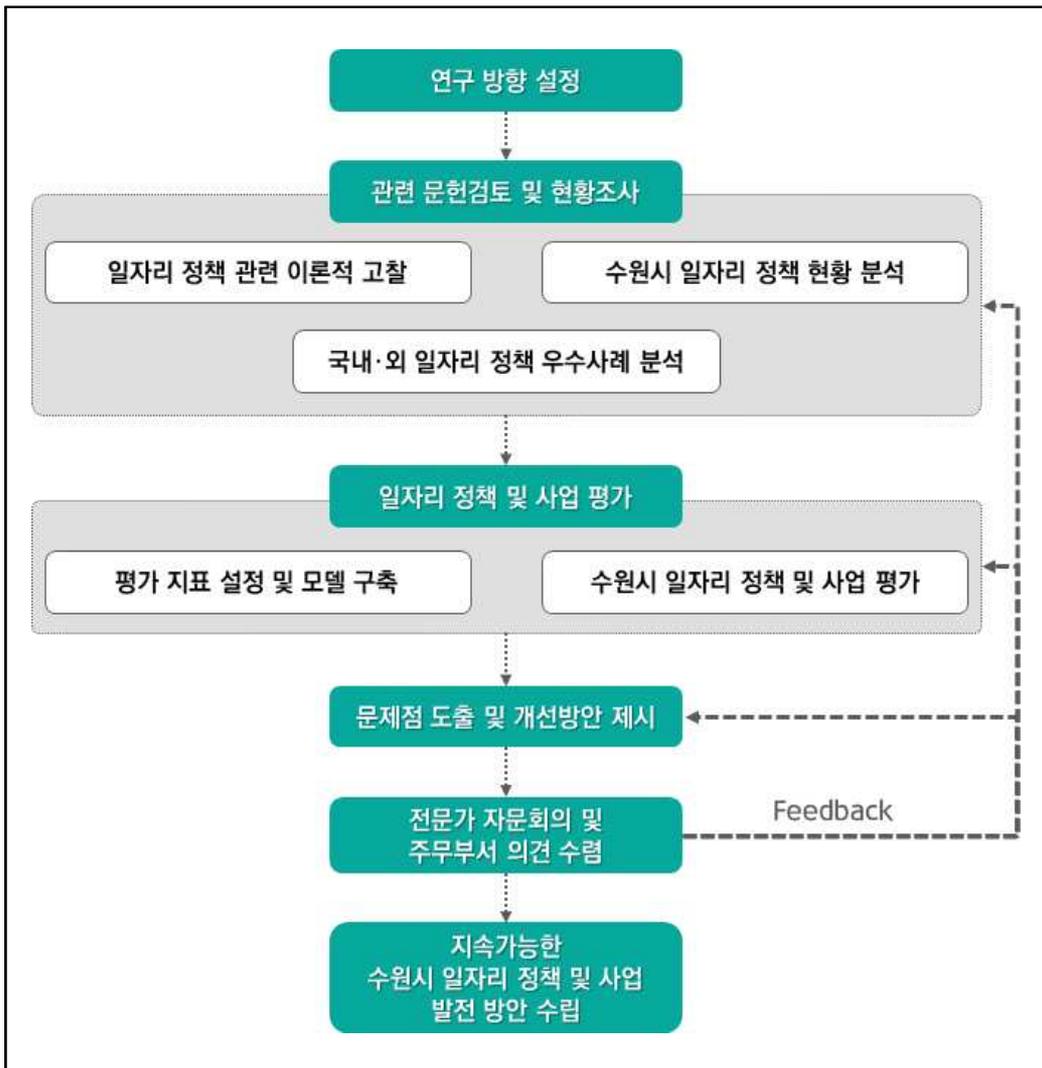
〈표 1-1〉 연구의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전역 ■ 국내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조사를 위하여 전국 포함
시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통계 등 기초자료를 2019년을 기준으로 설정 ■ 기준년도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정책 관련 이론적 고찰 ■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국내·외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분석 ■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및 평가 모델 구축 ■ 지속가능한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발전방안 수립

제3절 연구수행체계

연구의 착수와 동시에 수원시청,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구의 수행체계 및 연구방향을 설정하기로 한다. 연구수행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된 정책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위원의 의견들을 본 연구에 상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또한 지속적인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연구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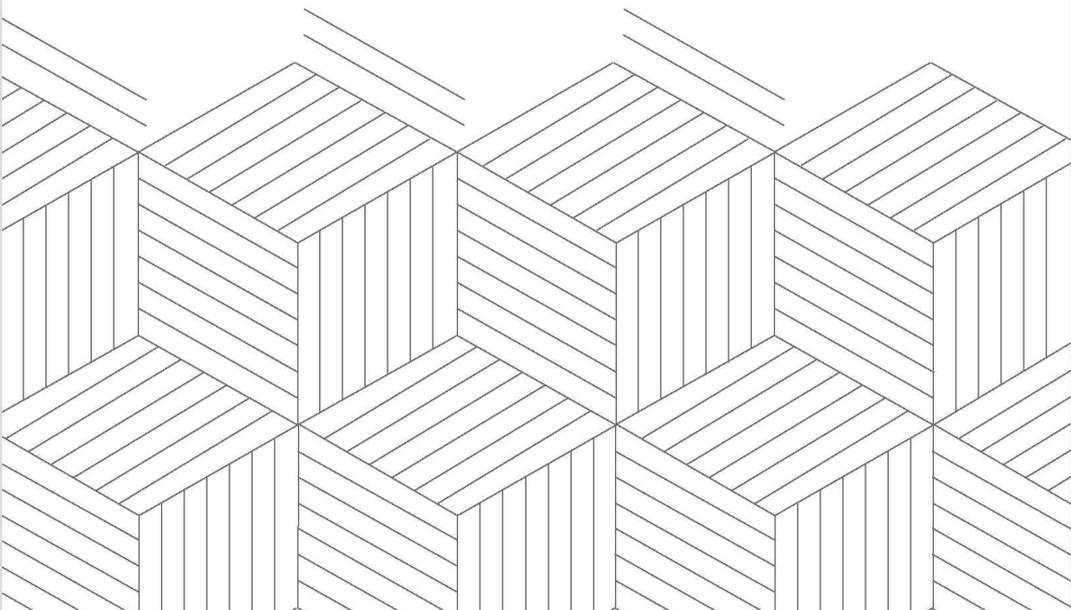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제2장

일자리 정책 관련 이론적 고찰

- 제1절 개념
- 제2절 추진 배경
- 제3절 필요성
- 제4절 범위
- 제5절 지역발전



제2장 일자리 정책 관련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념

노동시장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서로를 연결시키는 시장이다. 제도적인 의미에서는 노동력을 사회의 일자리에 분배하는 사회규칙의 체계이다.(이각범, 1989¹⁾) 노동시장은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노동과 인간의 관계를 고려한 노동 공급 측면에서 노동 공급곡선은 매우 비탄력적이다.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생존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 전체의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 개인의 단기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 사회의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양과 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재화인 노동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된다. 노동이라는 재화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치 실현의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주관적 상태와 일자리의 객관적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기능 수행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시장 내 공적개입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에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 의미를 의미한다.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청년대책, 고용보조금, 공공부문 채용, 장애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소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업보조금, 조기퇴직 대책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격을 보인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취업 알선,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보조금 지급 또는 조기퇴직자 등을 대상의 지원 정책 등이 있다.

1) 이각범(1989),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시장, 자본주의 경제와 노동시장, pp.9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일자리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자리이다. 이는 공공부문 재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재정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이지만 일부 공공부문의 임시 일자리도 포함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말한다. 이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표 2-1〉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

구 분	정 책	세부내용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취업알선	■ 구직, 구인 정보 제공
		■ 직업지도 및 상담
		■ 취업통계 DB구축
	직업훈련	■ 성인 실업자 대상 훈련
		■ 취업중인 성인대상 훈련
	청년대책	■ 청년 실업자 또는 청년 중저 취약집단에 대한 대책
		■ 청년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 민간부문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 창업 지원
		■ 공공부문 및 비영리 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대책	■ 장애인 직업 훈련	
	■ 장애인 대상 사업	
소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실업보조금	■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조기퇴직 대책	■ 노동시장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 보조금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pp. 7-8

제2절 추진 배경

실업에 대한 정책은 적극적 대책과 보호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대책은 실업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고용 및 기업경영안정지원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직자 취업 등 보호대책은 하위 개념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보호 정책이다. 이는 실업의 증가를 방지하는 고용안정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이다.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신규 투자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그림 2-1〉 일자리 창출사업의 분류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pp. 6

제3절 필요성

중앙정부가 지역의 여건이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일자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순히 집행을 위임하는 일자리 사업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런 방식의 일자리 전달체계는 지역의 정책능력과 사업집행능력 제고가 어렵고 충분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될 경우, 일자리사업이 최종 실행되는 단위인 지역의 특성이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져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분권화된 전달체계와 수요와 공급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윤윤규, 2010²⁾)

윤윤규(2010)는 자체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즉, 일자리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사무소, 공공·민간전문기관, 기업, 노조,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는 전달체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윤윤규 외 7명(2010),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 방법론, 설정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제4절 범위

일자리 창출 정책은 크게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인 목표 집단(Targeting Group)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따른 구분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정책방법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다시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³⁾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영역이나 비영리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나 훈련 등과 같이 민간부문에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목표 집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분류하는 것은 정책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한다.⁴⁾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특정대상 집단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집단이 취업 또는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정책집단에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학력자, 여성가장과 가사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포함된다.

어떤 분류체계를 사용할 것인가는 활용목적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분류체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두 분류체계를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정책방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구분은 정책수단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고유한 기준 외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사 사업군 별로 정책효과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비해 정책대상의 집단별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정책대상 집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대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내용들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를 살펴보자. 일차적으로 정책 대상을 집단별로 분류한다. 이후 각 대상 집단별로 정책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재분류한다. 그래야만 정책집단별로 유효한 정책 지원수단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정책지원 수단별로 일차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정책대상 집단별로 재분류하면, 특정한 정책수단이 어떤 정책집단에 유효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공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자리

3) 이규용(2005),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12.27-44. 한국노동연구원.

4) 이규용(2005),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12.27-44. 한국노동연구원.

창출을 위한 경제·산업 정책 외에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모두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한다.

이에 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특정한 목표를 대상으로 한다. 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구체적인 정책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특정 정책 집단의 일자리 창출 혹은 고용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김주섭 외, 2008⁵⁾). 특정 정책집단의 일자리 창출 혹은 고용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프로그램은 범주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의 틀로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보험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자에 대한 대책 등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말한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발생한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사전에 실업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도록 재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시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역할은 상호이익이 가능한 거래가 자발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시장이 그런 거래들을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Ehernberg & Smith, 1997). 즉, 노동시장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존재가 정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Geroski, Gregg & VanReenen, 1995)는 의미이다.

5) 김주섭 외 7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연구 : 2008 고용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OECD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를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취업알선, 직업지도, 상담 등의 고용안정서비스(employment service),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용성장, 저실업, 우수한 인적자본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기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시점에 처해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선두 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은 기존 노동시장과 대비되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또한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높은 유연성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반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주요 생산 메커니즘에서 경력단절 여성 및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정년의 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양측의 주장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교육체계의 개혁이 요구된다. 즉, 기업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막아야 한다.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청년층의 고용을 높일 수 있고 인적자본을 축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신철(2011)⁷⁾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방지하고 성장과 형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의 질적 후퇴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일자리의 계급 고착화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고용구조변화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나 고용의 질 하락은 생산성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생산서비스나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개인서비스나 유통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구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고용구조의 양극화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높인다. 이후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 빈곤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김승택 외, 2008).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장은 쉽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7) 장신철, OECD의 임시직 개념과 각국의 규제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7,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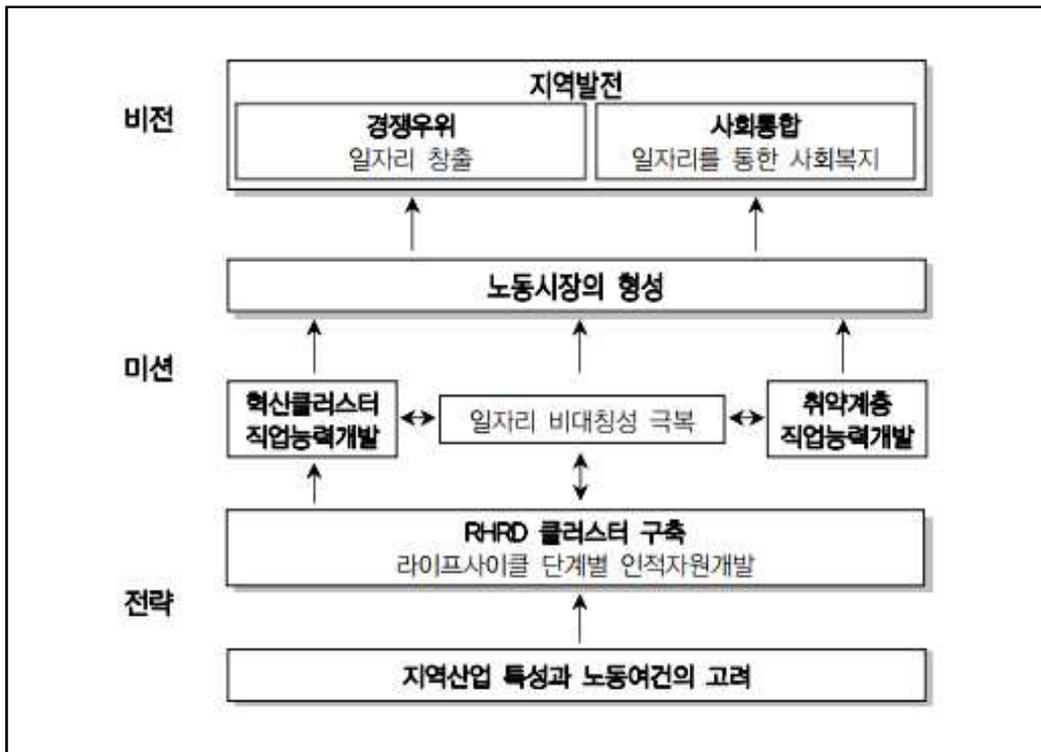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통계자료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는 922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는 7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경제 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일자리 부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하여 생각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8) 금재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의 중요성과 방향, 노동리뷰, 2010년 10월호

제5절 지역발전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만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지역이 경쟁우위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순차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도 가능하다. 건강한 노동시장은 일자리 불일치와 직업능력 불일치가 거의 없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이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의 구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하다. 다양한 양질의 지식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인재육성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그림 2-2〉 지역산업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지역발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pp. 232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고용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은 시장 자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학습고용정보센터가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잇는 정보의 허브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시장 시그널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시스템(RHRD)이 구축되고 이로 인해 건강한 노동시장이 작동하면, 모두에게 공평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식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적 혁신과 경쟁우위가 확보 가능하다. 또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 실현으로 사회통합의 구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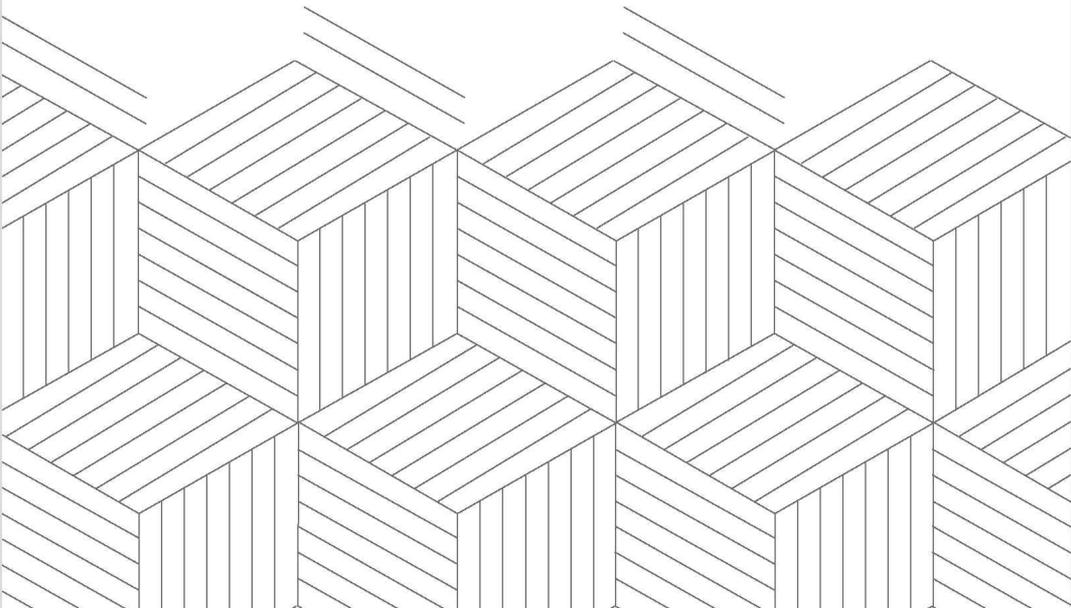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 및 노동 특성을 고려한 고용시장 구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수요자인 산업계, 공급자인 대학 등의 인재양성 기관, 산업 인프라 제공자인 지방정부 등이 지역경제사회선진화를 위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계별로 지식노동력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RHRD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RHRD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체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의 병행은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권력과 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정부와 기업,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급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상호신뢰에 입각한 노동 자원을 매개로 하는 협력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후 지역 산업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면 된다.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제도적 뒷받침이 병존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사의 역량이다.

제3장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분석

제1절 정책 및 사업 개요
제2절 정책 및 사업 현황



제3장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분석

제1절 정책 및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목표 달성비율’,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대책 창의성’,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5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청년창업자와 기술·경력·네트워크가 있는 퇴직 인력을 연결·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일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중년 디딤돌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정책의 강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7월에는 ‘일자리 정책관’을 신설하였다.

특히,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2018년 기준 지역 일자리 19만 9,924개를 창출하여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는 바로 고용통계로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주관하는「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수원시의 전체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기간(58.1%) 대비 2.7%p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는 6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3,000명이 증가하여 경기도 내에서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하였다. 계층별 고용률을 살펴봐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청년층 고용률은 48.3%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7%p 상승하였다. 장년층 고용률은 70.4%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9%p 상승하였다. 여성 고용률 역시 50.7%로 전년대비 4.7%p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든 계층의 고용률이 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



자료: 수원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과거 보도자료, <http://www.suwon.go.kr>

〈표 3-1〉 민선6기('14~'18)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구 분	일자리 목표	실제 창출	달성률
합 계	17만개	19만 9,924개	117.6%
2018년	3만 6,000개	4만 1,689개	115.8%
2017년	3만 6,000개	4만 1,944개	116.5%
2016년	3만 4,000개	4만 3,382개	127.6%
2015년	3만 4,000개	3만 9,275개	115.5%
2014년	3만개	3만 3,624개	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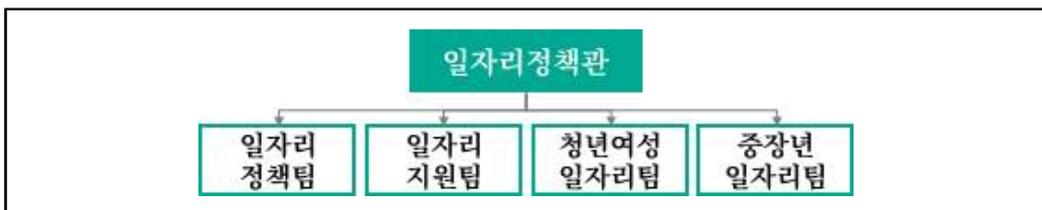
자료: 수원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과거 보도자료, <http://www.suwon.go.kr>

1. 주무부서 현황

1) 기구 및 인력

일자리 관련 주무부서인 ‘일자리 정책관’은 1정책관에 일자리 정책팀, 일자리 지원팀, 청년·여성 일자리팀, 중장년 일자리팀 등 총 4팀으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 기준 정원 15명에 현원은 16명이다.

〈그림 3-2〉 일자리정책관 조직도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표 3-2〉 일자리정책관 인력현황

구 분	일 반 직					
	4,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타
인원현황	1	4	6	3	1	1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팀별 담당업무

(1)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정책팀은 일자리정책관의 총괄팀이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창업(성장)지원센터 및 세대융합창업캠퍼스의 운영 및 지원 역시 일자리정책팀이 담당한다.

(2) 일자리지원팀

일자리지원팀은 수원시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 역시 일자리지원팀의 업무이다. 특성화고 지원을 포함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청년·여성 일자리팀

청년·여성 일자리팀은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의 촉진을 위한 여성고용정책 수립 추진도 청년·여성 일자리팀의 주요업무이다.

(4) 중·장년 일자리팀

중장년 일자리팀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9년 개관한 ‘신중년 이모작센터’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의 위상을 나타낸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새희망 일자리, 지역공동체, 넥스트 일자리 등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 역시 중장년 일자리팀의 담당업무이다.

3) 일자리정책관 비전과 전략

〈그림 3-3〉 일자리정책관 비전과 전략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제2절 정책 및 사업 현황

1.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

1) 개요

수원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중심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 일자리 추진 사업과 연계하며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추진하였다. 시민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하는 행복, 행복한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 추진실적

〈표 3-3〉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 정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성 과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6기 일자리 창출실적(2018. 9)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63명, 113.3% ■ 4년 연속 최우수상 (2015~2018)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부시장 직속 일자리정책관 신설 - 일자리총괄팀 신설, 일자리상황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7월
수원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형 새-일 공공 일자리 사업 ■ 신중년 디딤돌 사업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계층별(청년·여성·중장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개 사업 132명 ■ 35개 사업 166명 ■ 25명 취업/99명 고용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사업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9)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그 성과를 확인하는 제도

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비영리 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심사 후 선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

2.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1) 개요

저성장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¹¹⁾을 추진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으로 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실적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에 집중한 사업이므로 청년층 참여 확대를 도모한 결과 청년층의 참여가 50% 이상이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력 형성형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산하기관 및 여러 단체의 참여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였다.

〈표 3-4〉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명 / '18. 11. 30 기준)

구 분	사업부서	컨소시엄	사 업 수	예 산	참여자수	비 고
2017년	18	10	22	950	118	시급 7,910원
2018년	31	16	43	2,000	132	시급 9,000원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그림 3-3〉 새-일 공공 일자리 사업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11)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 수원형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경력형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3.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창업

1) 개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창업’은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예비창업자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강소기업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업·성장관은 창업 초기 기업에게 사업화 공간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기술·경력을 지닌 퇴직 중장년과 청년을 연계하여 퇴직 장년인재가 창업 초기·청년기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원형 단계별 창업시스템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표 3-5〉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현황

구 분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관	성장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¹²⁾
위 치	팔달구 향교로 160	팔달구 행궁로 98	영통구 월드컵로 199, 8층
시설규모	면적: 1,866㎡ 보육실: 41실	면적: 1,612㎡ 보육실: 19실	면적: 654㎡, 보육실: 14실
예 산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금 375백만원		국비 2,100백만원,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금 2,600백만원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추진실적

〈표 3-6〉 창업지원센터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창업 지원 센터	입주기업 성공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획득 관련 지원 ▪ 성공적인 기술사업화·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관내 창업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분야 맞춤 지원

12) 세대융합창업캠퍼스 : 숙련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창업 쏠단계를 지원 (2017~2019년 3년간 국비 63억원 지원)

〈표 3-6〉 창업지원센터 추진실적(표 계속)

구 분		내 용	비 고
창업지원센터	2018 수원 창업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업자 육성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7팀 참여(아이디어 203, 사업화 94팀) 시상 9개팀
	고품질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마케팅 실전전략, 실전 크라우드 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명, 75시간(25회)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창업팀 성장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 10년 이상의 중·장년(만 40세 이상)과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청년(만 39세 이하)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세대융합 창업팀 20개팀 선발
	장년인재 서포터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퇴직 장년인재를 발굴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기술 등 애로사항 진단·코칭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그림 3-4〉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자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uwonbic.kr>)

4.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1) 개요

일자리센터는 수원지역 공공고용서비스 종합 허브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및 지역 일자리 창출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구인·구직자간 취업연계 역량체계 및 인프라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2018년도 일자리센터¹³⁾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16,000명이며,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표 3-7〉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단위 : 명, 건 / 2018. 9. 30 기준)

구 분	구인등록	구직등록	알 선	취 업	동행면접		상 설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운영실적	8,025	8,965	25,740	8,781	100	120	35	80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추진실적

〈표 3-8〉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성 과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을 상향 달성을 위한 구직자·구인기업 사전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회 / 25개 업체 / 55명 채용
대규모 전계층 일자리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일자리네트워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박람회 추진 참여 구직자들의 경력관리, 취업상담 등 맞춤형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회 / 158개 업체 / 983명 채용
골목을 살리자 「작은 일자리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상권 활성화 및 구인 영세업체를 위한 지역 구인 업체와 구직자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 11개 업체 / 19명 채용

13) **일자리센터** : 취업교육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구인구직상담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10.2.26. 개소, 직업상담사 45명- 센터 7, 고용복지+센터 3, 동·주민센터 26, 산업단지 1, 특성화고 8)

구 분	내 용	성 과
전문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직무교육훈련	■ 신입경비, 전기내선, 회계관리자 양성과정, 사무지원 전문 인력	■ 4개 과정, 104명 수료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기(청년·중장년) 6회, 단기(신중년·여성·고령·취약계층) 4회	■ 6개 과정, 197명 수료
기 타	■ 일자리발굴단(2명) 운영	■ 구인발굴 69건, 알선 469건
	■ 다시 한번! 열정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 30개 업체 / 100여명 채용
	■ 수원산업단지 및 동 주민 센터 상설면접장 운영	■ 수시
	■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1개 과정 / 20명
	■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운영	■ 5개 업체 / 20명 채용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그림 3-5〉 수원시 일자리센터



자료: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5. 고교생「꿈잡(Job)이 마스터」육성

1) 개요

고교생 「꿈잡(Job)이 마스터」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 및 일반고(대학 미진학) 학생들의 취업 마인드를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진로목표 설정을 지원한다.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켜, 다각적인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졸 취업 성공의 지름길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 3-9〉 꿈잡(Job)이 마스터 사업 개요

구 분	신입생 진로캠프	진로직업 체험캠프	진로·취업상담	적성·취업특강	실전면접 클리닉
기 간	2월~6월	2018. 하반기	연 중	연 중	연 중
대 상	신입생	직업위탁 교육희망자	전학년	2, 3학년	면접 준비생
인 원	2,400명	300명	7,000명	2,000명	185명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학교회의실, 상담실	학교 강당 시청각실	시청 소회의실
소요예산	400백만원	50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주: 모든 프로그램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병행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추진실적

〈표 3-10〉 꿈잡(Job)이 마스터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내 용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 8회, 2,410명
특성화고 진로캠프 경진대회 및 성과보고회	■ 8개교, 200명
찾아가는 취업특강	■ 6회, 1,801명
실전 면접클리닉	■ 9회, 140명
일반고 진로직업 체험캠프	■ 8개교, 100명
특성화고 일자리상담사 운영	■ 8개교, 특강 40, 진로상담 735, 이력서클리닉 1,626, 모의면 접 1,145, 구인처 발굴 87, 취업 19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6. 브라보 5060+ 신중년¹⁴⁾ 인생2모작 성공프로젝트

1) 개요

‘브라보 5060+ 신중년¹⁵⁾ 인생2모작 성공프로젝트’는 준비 없는 퇴직·재취업으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및 늘어난 수명에 따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40대, 50대, 퇴직 전후)의 경력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 사업이다.

〈표 3-11〉 수원시 신중년(5060) 세대 현황

(단위 : 명 / 2018. 10. 31 기준)

구 분	총 인구수	신중년인구	비 율(%)	비 고
남 성	605,743	128,127	21.1	신중년(50~64세)
여 성	596,732	127,200	21.3	
합 계	1,203,285	255,327	21.2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추진실적

〈표 3-12〉 신중년 인생2모작 성공프로젝트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성 과
신중년을 위한 전직·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3회, 45명, 4주 24시간), 단기(2회 41명, 1일 4시간) 집단·개별상담(평생직업 설계 및 생애설계, 취업/경력개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회 86명 수료
직업능력강화를 위한 취업직무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취업교육기관과 협업, 전기내선 안전관리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과정 15명 수료
신중년을 위한 노후준비 인생 재설계 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초청 특강,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600여명
인생2모작 60+ 세대 취업직무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입경비교육 진행,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반 56명 수료
신중년 지원서비스 지원기관간 인프라 네트워크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기관 : 4개 기관(수원시, 노사발전재단, 뫼라도학교, 실버인력뱅크) 기관 간 인프라 정보 공유·제공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14) 신중년(5060)세대 :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
 15) 신중년(5060)세대 :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

7.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1) 개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보 사업을 추진하여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고용 활성화와 고용절벽을 해소하는데 일조한다.

2) 추진실적

〈표 3-13〉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성 과
청년 해외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ove스쿨 일본 IT기업 취업과정(제3기) 운영 - 수료생 25명 전원 채용 확정 ■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운영 - 취업자수 : 12명 / 취업률 7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명(2017.12 ~ 2018.7) ■ 17명(2017.7 ~ 2018.6)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¹⁶⁾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채용장려금 21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개사 99명 고용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¹⁷⁾ 공모선정 ■ 수원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 지원 및 참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2018.7 ~ 2020.6)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0명(1월 130명, 7월 130명, 8월 100명)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취업·창업지원 기능 간 연계 강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아주대, 경기대)
청년취업 장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분석, 입사서류 작성, 면접전략 등 취업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40명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16)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근무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 적립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추가하여 1,600만원을 지원하는 공동공제금 적립제도(수원형은 기업에 채용장려금 210만원 추가지원)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2018년 하반기 ~ 2021년)

8.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

1) 개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입직(취·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실무 중심 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한다.

2) 추진실적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주체 : 시(총괄), 여성새로일하기센터18(사업수행)
 - 전담인력 33명(센터장 2, 취업설계사 13, 직업상담사 14, 사업지원 4)
- 사업내용 : 취업상담·알선,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 사 업 비 : 1,140백만 원(국비 509백만 원, 도비 235백만 원, 시비 396백만 원)

〈표 3-14〉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 추진실적

구 분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역량 강화		여성일자리 박람회
	구 인	구 직	취 업	직업교육훈련	고학력·고숙련 심화교육	
추진실적	8,118명	10,390명	2,484명	10개 과정 124명 (취업 81명)	4개 과정 80명 (취업 35명)	1회 31개 기업 (취업 28명)

〈표 3-15〉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성 과
취업·직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취업상담, 적성검사,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상담 ■ 1:1 맞춤형 상담, 취업정보제공 	■ 19,175건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및 훈련형 공동체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적응프로그램 여성인턴제 운영 ■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 관리사업 ■ 디딤돌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명 연계 ■ 8개 사업 / 280명 지원 ■ 11개 동아리 / 회원 90명
생계형 취약계층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40~65세 미만), 취약계층(일용근로) 여성 취업지원 	■ 807명 취업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관내 2개소 운영, 전국 150개소)

9.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1) 개요

저소득·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일자리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환경정비 등 단순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 및 기술습득으로 민간취업을 장려한다.(매년 3/1~ 10/31, 상·하반기 각 1회(4개월) 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학력 미취업자 등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청년층(18~34세)은 선발기준 점수표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우선 선발한다. 근로조건은 주5일 근무 1일 6시간이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수원시민으로 재산 2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개요

구 분	새희망 일자리 사업 ¹⁹⁾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4개월 3단계)	■ 2018년 3월~10월(상·하반기)
사업규모	■ 연 600명(단계별 200명)	■ 연 80명(단계별 40명)
소요예산	■ 2,167백만 원(자체사업)	■ 406백만 원(지특 ²⁰⁾ 50%, 시비 50%)
근로조건	■ 주5일, 1일 6시간(9시~16시, 만 65세 이상의 경우, 3시간)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재산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재산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19) 새 희망 일자리 사업 : 기존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저소득 청년층·장애인·신종년 등 대상)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사업 예산중 50%를 지원 받음

2) 추진실적

〈표 3-17〉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성 과
새희망 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단계 추진, 환경정비 및 서비스 지원 등 112개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회 653명, 1,715백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산수리, 아기용품 제작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6개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반기 68명, 336백만 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회 1,1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회 443명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표 3-18〉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유형 및 사업 현황

구 분	선발인원								배치현황						
	D/B 구축지원 사업군		서비스 지 원 사업군		환경정화 사업군		기타사업		시	사 업 소	장 안 구	권 선 구	팔 달 구	영 통 구	합 계
	사업 수	선발 인원	사업 수	선발 인원	사업 수	선발 인원	사업 수	선발 인원							
1단계	7	7	41	57	59	116	3	3	29	28	31	41	30	24	183
2단계	8	7	42	76	58	130	2	2	29	43	36	47	33	27	215
3단계	6	6	39	74	62	170	4	5	31	39	49	59	41	36	255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표 3-19〉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성별·연령대별 현황

구 분	합계	성 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 64세	65~ 69세	70세 이상	
1단계	183	90	93	1	10	13	20	56	29	23	31	
2단계	215	101	114	-	8	13	37	44	45	41	27	
3단계	255	129	126	-	7	13	44	59	44	43	45	
합 계	653	320	333	1	25	39	101	159	118	107	103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표 3-20〉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2018년)

구 분	사업부서	선발 인원	기술별		성 별		연령별		
			참여자	기술 인력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상 반 기	아기용품지원사업	조원2동	5	4	1	-	5	4	1
	천연비누제작소	고등동	5	4	1	-	5	5	-
	찾아가는 우산수리 센터	일자리정책과	5	4	1	5	-	5	-
	토탈공예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매탄4동	5	4	1	-	5	4	1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입북동	3	3	-	1	2	2	1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상담 통번역 서비스	여성정책과	3	3	-	-	3	3	-
	호매실 과수공원 만들기	농업기술센터	5	5	-	5	-	2	3
하천과 텃밭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	정자3동	4	4	-	3	1	3	1	
하 반 기	아기용품지원사업	조원2동	6	5	1	-	6	6	-
	찾아가는 우산수리 센터	일자리정책과	4	4	-	4	-	4	-
	토탈공예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매탄4동	6	5	1	-	6	5	1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상담 통번역 서비스	여성정책과	4	4	-	-	4	4	-
	호매실 과수공원 만들기	농업기술센터	8	8	-	8	-	4	4
하천과 텃밭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	정자3동	5	5	-	3	2	4	1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10.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1) 개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청·장년층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능기술 습득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과 신중년층의 적극적인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여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²¹⁾」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기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층에게는 새 일자리(도시생태 농업)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도모한다.

〈표 3-21〉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구 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8. 1월~12월(연간)	■ 2018. 3월~11월(상·하반기)
사업규모	■ 연 20명(참여기업 수습지원)	■ 연 25명(상수도사업소)
지원내용	■ 수습지원금 월 700천 원 (수습 4개월, 정규직전환 3개월)	■ 65세미만 주 30시간 월 100만 원 ■ 65세이상 주 15시간 월 56만 원
소요예산	■ 63백만 원(도비50%, 시비50%)	■ 78백만 원(도비50%, 시비50%)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추진실적

〈표 3-22〉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 기업체 안내문 발송, 산업단지 방문 및 사업설명(2월~6월) ■ 수습협약 : 2개 업체 3명 ※ 2017년에는 11개 기업 14명 수습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 선호하여 어려움이 있음
시 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8. 4. 2. ~ 11. 30.(상·하반기) ■ 사업장소 : 상수도사업소 ■ 선발인원 : 23명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1) **넥스트 희망일자리** : 경기도 주관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관내기업이나 공동작업장에 취업 알선하는 사업
2019년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은 일몰 처리됨(시 일자리 사업은 타 사업으로 추진)

〈표 3-23〉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 및 기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집행액	사업기간
2016년	89,942	26,034	2016.5.1. ~ 12.31
2017년	141,706	123,294	2017.1.1. ~ 12.31
2018년	142,104	83,151	2018.1.1. ~ 12.31
합 계	373,752	232,479	-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표 3-24〉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현황

(단위 : 명)

구 분	목 표 인 원 (계획)	신 청 인 원	참여인원			사업장 (기업체)	사 업 유 형	취 업 인 원	중 도 포 기 (사유)
			합 계	남 성	여 성				
2016년	18	13	13	8	5	8	1	13	7 (자진)
2017년	12	14	11	14	9	5	1	14	4 (자진)
2018년	29	39	21	19	2	3			
	15	3	1	0	1	2	1	0	0
	20	38	20	19	1	1	2	0	0
합 계	59	66	45	41	16	16		27	11
	39	28	25	22	15	15	1	27	11
	20	38	20	19	1	1	2	0	0

주: 사업유형 1)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2) 수원시 일자리사업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11. 신중년 인생2모작 맞춤형 일자리

1) 개요

준비 없는 퇴직에 직면한 신중년²²⁾은 은퇴 후에도 자녀교육과 결혼, 노부모 봉양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 구직이 필요한 신중년에게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인생 2모작 준비 지원을 목표로 한다.

〈표 3-25〉 신중년 인생2모작 맞춤형 일자리 사업 현황

구 분	사회공헌활동 ²³⁾	신중년 디딤돌 사업 ²⁴⁾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11개월)	■ 2018년 3월 ~ 12월(10개월)
사업목표	■ 연 460명	■ 연 200명(상·하반기)
소요예산	■ 712백만원(공모사업)(국비70%, 시비50%)	■ 800백만원(자체사업)
사업분야	■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 60여개 사업	■ 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자격요건	■ 수원시 거주 만 50세 이상 해당사업 분야 자격소지자 ■ 퇴직자로 생계보다는 봉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수원시 거주 1954년~1968년생, 연간 재산세 50만원 이하 납세자 ■ 신중년 사업관련 해당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근무내용	■ 연 480시간 이내 ■ 1일 최대(8시간) 24,000원	■ 주 25시간(1일/ 5시간) ■ 1일 37,650(최저임금), 월 950,000원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 추진실적

〈표 3-26〉 신중년 인생2모작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매칭활동 : 기관 74개소/참여자 504명 ■ 정기점검 : 2회(6월.11월) ■ 보조금 교부 : 3회 712,747천원
신중년 디딤돌 사업	■ 사업기간 : 2018. 3. 12. ~ 12. 10.(상·하반기) ■ 동물보호현장실무단 등 35개 사업 166명 참여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22) 신중년(5060)세대 :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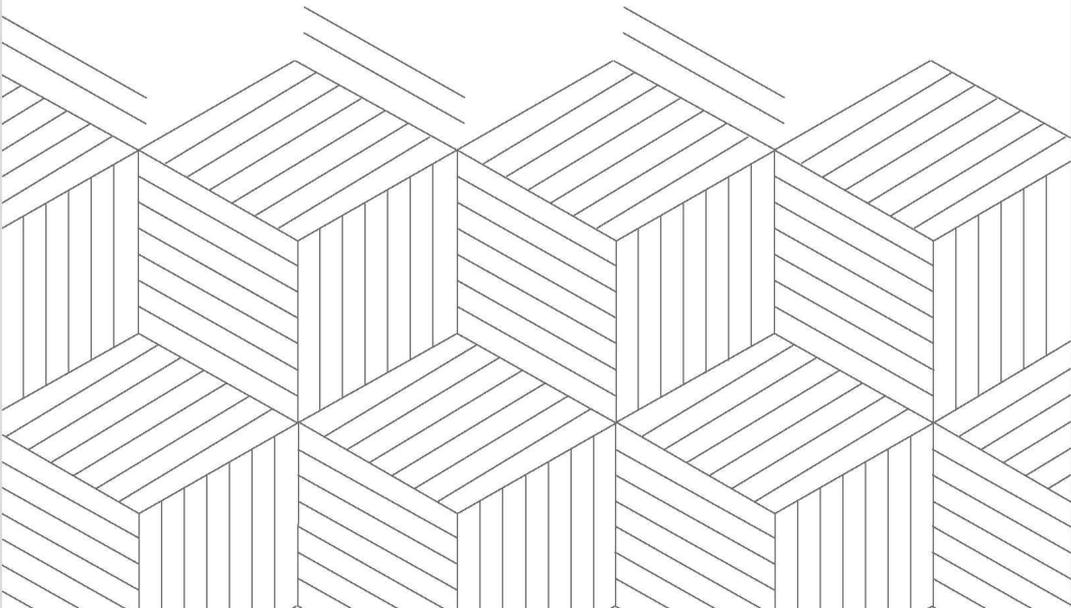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23) 사회공헌활동 : 만 50세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 봉사하는 일자리사업

24) 신중년디딤돌 : 신중년(50~64세)의 자격과 경력을 활용한 참여형 일자리사업

제4장

국내·외 일자리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국외 사례
제3절 소 결



제4장 국내·외 일자리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사례

1. 광주광역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1) 사업목적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을 추진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 니트(NEET)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니트(NEET)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장기 미취업과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였다.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의 빈틈을 보완하한 광주광역시만의 독자적인 일자리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직무현장을 기반으로 상담·교육·일 경험을 통합하여 직무에 실제로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교육과 노동의 단절을 끊고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법을 탐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부 계획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적경제형, 사회복지형, 청년활동형 등으로 일자리 유형을 나누고 각각 사회적 경제, 사회 서비스, 사회공헌 분야 일자리와 연계시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 추진배경

광주광역시는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다. 교육과 노동으로의 이행기 지체가 현재 청년일자리 문제의 핵심으로 진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행기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행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지역청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실태조사와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 사업 발굴의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2015)',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2017)'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진단을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사업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장기미취업과 구직단념

청년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로 도출하였다.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2017)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니트족은 OECD 평균 8.2%, 전국평균 12.5%로 나타났다. 광주는 이들보다 높은 13%(4만 5천명)로 나타났다. 고용여건과 고용의 질 악화로 장기미취업·구직 단념 청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초점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을 받은 청년은 19.7%,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0.8%로 나타났다. 지역여건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청년층의 직무현장과 일 경험의 기회가 매우 낮아 교육과 노동의 단절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일자리 연계의 지속적인 미스매치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NEET) 일자리 정책’은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3) 사업개요

〈표 4-1〉 광주청년드림 사업(Dream)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4개월 단위로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누어 기수별 운영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직무현장의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로 연계 ※ 캐나다, 프랑스 청년 일자리 지원 기본원칙(Work First) 적용 ■ 일과 직면하면서 교육, 상담을 병행하며 교육과 노동의 단절을 해소
수행기관	■ 5개 유형(4개 기관)

〈그림 4-1〉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http://www.google.com>)

4)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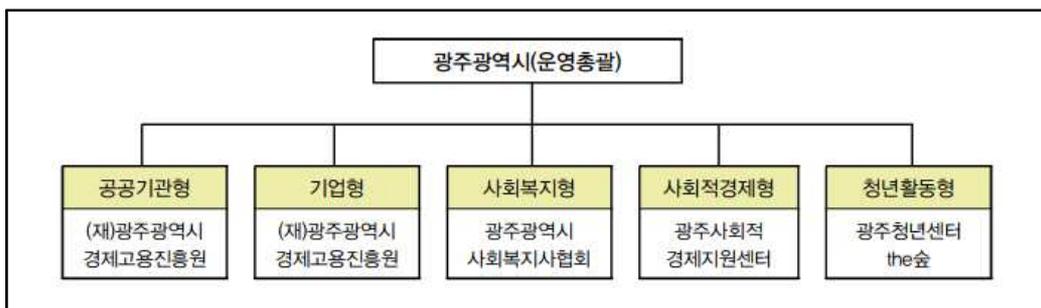
〈표 4-2〉 광주청년드림 사업(Dream)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에 참여한 청년에게 직무경험과 급여 지원 -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 1시간당 8,410원 / 4개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400명)
근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 근무(자격증 취득 등 청년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강화 시간을 보장)
참여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개 유형(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수당 연계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과 차별화 강화 - 일 경험 이후, 구체적인 진로와 직무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드림수당을 연계 지원(정규직 채용 및 취업성공 청년은 제외)

광주청년드림 사업이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지니는 것은 지역현장에서 청년들이 진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5개의 유형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데에 있다. 취업상담과 훈련기관 교육중심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차별화하여 실제 직무현장의 경험과 필요한 교육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각 유형별로 청년드림 매니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청년참여자의 진로경로에 대하여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여 일자리 연계 이후의 단절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프로그램이 기수 형태로 운영되어 청년 참가자들 상호 간에 정보교환·교류 등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 역시 광주청년드림 사업만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5개의 유형별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2〉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 운영체계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8

광주청년드림 사업(Dream)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니트(NEET)’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둘째, 청년의 역량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서로 불일치하여 일자리로 연계되지 못했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였다.

셋째, 일자리에서 시작한 청년문제가 주거, 부채, 심리 등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일자리 연계로는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청년드림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극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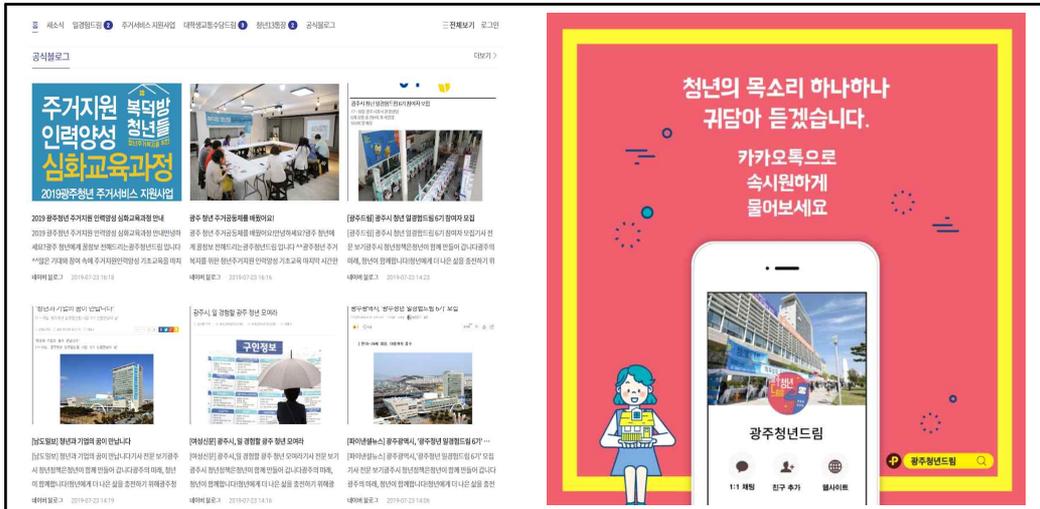
넷째, 기수별로 공동교육 등의 과정을 통하여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 집단으로 공동체 연대감을 형성하고 청년 상호간의 눈높이 정보를 교환했다.

다섯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정책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블로그, 카카오톡 등 3개 온라인 채널을 연동하여 정보 및 상담을 제공했다. 이상의 5가지를 사업의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표 4-3〉 성과요약 및 2018년 계획

구 분	내 용
정량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청년 참가자 140명 중 직무현장 정규직 채용, 총 44명(31%)
정성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형성, 정책정보 제공에 만족 - 심리적 안정감 등 만족도 평균 4.75점(5점 만점) - ‘사회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음’(5점 만점), ‘청년드림사업 정보제공이 활발함’(5점 만점) - 「광주청년 드림사업 참여자 특성분석과 정책 후속수요 연구(2017)」결과
2018년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프터 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 참여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이행기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자립지원을 탄탄하게 구축 ■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청년의 눈높이와 불일치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광주청년드림 사업에 참여한 기업, 기관부터 청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콘텐츠 방식으로 제공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및 다양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청년에게 직접 후속 연계하는 종합 패키지 체계 구성

〈그림 4-3〉 광주청년드림(Dream) 온라인홍보 콘텐츠 및 온라인 소통 채널



자료: 광주청년드림 공식홈페이지(<http://gj3dreams.modoo.at>)

5) 기대효과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국정과제 18번(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을 지역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현했다.

둘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 따라 경력 부족, 저학력, 장기미취업, 니트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공정한 출발선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정책의 공백인 ‘청년니트 일자리정책’의 선도모델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넷째,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맞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대했다.

다섯째, 참여기업 선정과 관리에 있어서 환대와 존중의 기업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사람중심 일자리’를 지역에 확산시켰다.

2. 부산광역시,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산단 내 청년근로자 전기차 임대 지원)」

1) 사업목적

부산광역시의「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은 부산지역 서부산권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에게 전기차량의 임차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취업유도와 지역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기차량 보급의 확대로 ‘클린 에너지 부산’을 실현하고 산업과 연관된 지역 업체의 매출증대를 촉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배경

부산지역 서부산권 산업단지의 경우 일자리는 많으나 교통, 주거, 문화 등 근로·정주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청년층들의 취업기피 지역으로 꼽혔다. 그에 따라 산단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15년 청년구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산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잡매칭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도심외곽 산단에 취업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20대에서는 40.7%, 30대에서는 37.8%에 불과했다. 그 원인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불편, 긴 통근시간, 열악한 업무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하여 ‘청년 전기차 지원’이라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걸며 산단 정주환경 조성 전까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하고자 했다.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이 대기오염 유발과 도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지원할 수는 없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해결 대안으로 ‘전기차’가 집중 조명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주환경 미조성 신규 산단의 청년취업 유도를 위한 모델로써 전국적인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의 사업개요는 아래의 <표 4-4>와 같다.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5년간 총 1,500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표 4-4〉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기간	■ 5년간 1,500대, 500명 지원(월 30만원 한도 내, 1인 3년간) - 2018년도 100명 시범 운영, 성과분석 후 연간 확대 추진(2019~2020년 200명) ■ 취업 이후, 구체적인 진로와 직무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직장생활전념토록 지원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수행기관	■ 68억 원(국비 54억 원, 시비 4억, 기타 9억 원 / 3년 임차기준 월 35만 원 소요) - 전기차 임차비(63억 원) : 월 350,000원×500대×12개월×3년(청년부담 월 5만 원 포함) - 교육비 및 운영비(5억 원) 연간 100,000천 원×5년

〈표 4-5〉 총사업비 현황

구 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 고
차량지원(대)	100 (신규 100)	300 (신규 200 / 기존 300)	500 (신규 200 / 기존 300)	400 (기존 400)	200 (기존 200)	'18~'20년 (3년간) 500명 지원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19

4) 사업내용

부산광역시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은 아래의 〈표 4-6〉과 같다. 환경부와 연계하여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5년간 총 1,500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표 4-6〉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서부산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21세~34세의 부산시 거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기준) 청년근로자 대상 - 서부산권 산단(녹산, 신평정림, 신호, 과학, 화전, 미음, 강서보고, 생곡, 풍상, 성우 10개 단지) - 서부산권 산단 내 입주기업 3,153개사, 고용인원 69,721명(2017년 6월 30일 기준)
비 고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연계 추진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 운행) -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 구입비 중 일부 보조(국비 14백만 원, 시비 5백만 원, 충전 인프라 구축비 지원(최대 5백만 원)) ■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서 열람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보조금 지급 절차>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5)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는 아래의 <표 4-7>과 같다. 시행주체인 부산시, 전기차 제조업체, 자동차 금융 리스업체, 청년 근로자, 해당 기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준수하며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표 4-7>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계획 수립 및 참여자 역할분담, 사업운영 지도점검 등 - 대상기업 및 청년근로자 선정 및 사전교육, 차량 임대관리(임대료 지급, 부당수금 점검, 관리대장 작성), 사업현황 분석 및 성과 보고 등
제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전기차 임대계획에 의거 차량제조 및 공급 - 지역협력업체 100개사 참여 가능, 총 100억원 증대(2천만 원 / 대당 × 500대) 및 간접 고용창출효과 1,600명(3.2명 / 대당 × 500대)
리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량 구입 및 등록, 기업인도, 임대료 청구(매월) - 부산지역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을 두고 등록된 리스업체, 입찰추진
청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사전 의무사항 준수 - 1년 의무채용 약정 체결,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지급중단 등에 관한 사항, 개별 보험금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 등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시설 설치 승인(필요시), 근로자 중도 입·퇴사사항 통보

6) 기대효과

「청춘 드림카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이 미조성된 신규 산업단지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으로 전국적 모델로서 확산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자동차제조 및 부품업체 대거 참여로 시 자동차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클린에너지 부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부산지역 청년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 퇴직자는 53.4%에 달하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3년간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보호 효과(온실가스 2,700톤 저감), 경제효과(지역협력업체 총 100억 원 증대), 고용창출 효과(2,100명)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4〉 부산청춘드림카 선포식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3. 전라남도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

1) 사업목적

전라남도 순천시의「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청년의 유입을 통하여 ‘젊은 순천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청년들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이 아닌 청년이 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청년일자리 인프라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적 연대와 지지 기반을 구축하여 취업·창업·창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추진배경

순천시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청년층 취업 및 고용환경의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순천시는 지역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반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 직종, 학력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였다.

순천시는 생태관광도시 순천의 서비스 인프라와 결합된 청년일자리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의 능동적 사업 발굴수행을 위해 분기별 청년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며「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사업내용

순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은 아래의 <표 4-8>과 같다. 지역의 청년들이 관광객과 연계되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4-8>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분야	■ 일자리 인프라 개선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8년 12월
총사업비	■ 2,676백만 원
청춘창고	■ 순천역 인근 낙후된 농협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2017년 2월 8일)
웃장청춘	■ 전통시장 웃장 국밥거리 2층을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2017년 5월 25일)
사업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광객과 연계한 청년복합 문화 공간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창업·창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구축 ■ 전국 최초 창업·창직이 가능한 청년문화 공간 구축을 통해 청년 기업가가 발굴·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순천시가 청년 기업가의 발굴·육성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업전문성 강화 → 안정적 청년문화촌 입점 → 지속적인 컨설팅 &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장진입 및 청년 기업가 재발굴의 창업 선순환 플랫폼 구축

〈표 4-9〉 일자리 인프라 개선 사업 현황

구 분	2016년 지역 창업프로그램 연계 입주기업	
	창 업(개)	일자리(명)
청춘창고	22	48
옷장 청춘	15	29
아랫장 청년야시장	12	26
씨내물	12	31
청년창업 챌린지 습	9	34
총 계	70개 창업기업 육성	168명 일자리 창출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24

〈그림 4-5〉 청춘창고(젊은 관광 핫플레이스) 개점 및 청년정책 비전 선포



자료: 전라남도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1) 2018년 순천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계획

순천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VR을 활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춘창고 2호점에 VR체험존을 구축하였다. 주요 콘텐츠 분야는 관광서비스연계 영상, 게임, 교육, 산업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VR 콘텐츠를 개발, 시연,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서 판로개척을 통한 수익모델 구축하는 방식이다. VR 체험존을 통해서 20개 팀에 45명의 청년 창업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창업 투자시장 활성화와 재도전을 위한 청춘창업펀드를 조성하였다. 민간 자본의 투자시장 유입을 통하여 청년벤처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 자체에서 2억 원을 조성하였다. 1차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 ~ 2018년 12월이다. 2018년 청년 자립지원 및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을 만들었다.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 주거비 상승, 학자금 대출 등으로 7포 세대의 늪으로 빠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실질적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자이며, 2018년에 우선 100명을 지원하는 시범운영 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청년 본인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순천시가 1:1로 연결하여 근로 장려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방식이다.

〈표 4-10〉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명)	1,200	100	200	300	300	300
시비(백만원)	2,160	180	360	540	540	540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24

〈그림 4-6〉 순천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자료: 전라남도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기대효과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일자리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장기적, 거시적 관점의 청년일자리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한다.

둘째, 청년 친화적으로 구축된 지원 플랫폼으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셋째, 2018년 청춘창고 2호점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 인프라를 확대하여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넷째, 청춘창업펀드,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청년창업기업 관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함께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울산광역시,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

1) 사업목적

울산광역시는 시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이 철퇴를 맞으면서 지역에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했다. 울산광역시는 조선업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지역의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퇴직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석유화학시설 건설현장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기 퇴직자 및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전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고용률 제고 및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추진배경

2016년 울산광역시는 조선업 수주의 급감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었다. 조선업 종사자 1만 명 이상이 조기 퇴직을 했고 이는 그대로 지역의 실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조선업계 창설 이후 최악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울산의 실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16. 7. 1.)하였고 울산광역시에 「조선업희망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울산의 실업 위기가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 않은 조짐을 보이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했다.(2017. 7. 1.~2018. 6. 30.)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은 지속되었다. 특히,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실업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었다. 현재는 전 세계의 조선업 수주 물량 증가로 인해 울산 지역의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하지만 향후, 조선업 사태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전환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표 4-11〉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9월말)
종사자수* (협력업체)	현대중공업	69,602 (41,109)	63,501 (36,504)	52,862 (29,324)	34,482 (17,667)
	현대미포조선	12,555 (8,627)	11,580 (7,887)	9,635 (6,352)	7,729 (4,469)

주: (종사자수) 직영 및 협력업체 정규직·계약직 포함 종사자수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39

3) 사업개요

울산광역시의 조선업 관련 조기 퇴직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훈련 및 재교육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다.

〈표 4-12〉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조선업 및 연관기업의 조기 퇴직자들이 전 직장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재교육을 통한 전직지원
사업분야	■ 일자리 창출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고용부(고용지청), 중기부(지역청) 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퇴직자 및 실직자를 위한 ‘인생 3모작 정보센터’ 운영 ■ 지역 내 ‘전직훈련 및 재교육기술개발원’ 조기 구축 등 ■ 조기퇴직자 및 실직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훈련 및 재교육 실시 ■ 지역 내 특정분야 고숙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속운영 등

〈그림 4-7〉 건설현장 일자리 연계 MOU 체결



자료: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4) 추진실적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은 ‘플랜트 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전직 지원’과 ‘S-Oil(주)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현장 일자리창출 MOU 체결’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플랜트 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전직 지원

〈표 4-13〉 플랜트 분야 인력 지원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조선업 퇴직자 플랜트분야 특수 용접(배관, 제관), 보온함석, 산업설비과정 기술 교육·훈련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사업비	■ 694백만 원(국비 486백만 원, 시비 208백만 원)
사업실적	■ 교육수료 69명, 취업 35명(2017년 10월 기준)

(2) S-Oil(주)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현장 일자리창출 MOU 체결

〈표 4-14〉 S-Oil(주) 일자리창출 MOU 체결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조선업중 위기로 인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과의 MOU를 체결하여 전직지원 - 일자리창출 공동노력,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공동추진 등
추진기간	■ 2017년 6월 이후
협약기관	■ 울산시, 울산고용지청, S-Oil(주),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취업실적	■ 834명 취업(2017. 10월 기준)

(3) 시사점

조선업종 조기 퇴직자 및 실직자들이 갑작스럽게 양산됨에 따라 전직을 위한 훈련 및 재교육 시스템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전직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조기퇴직자 및 실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훈련 및 재교육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갑작스런 준비에 기관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화 및 활성화가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전직에 대비한 준비는 평생교육의 개념처럼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훈련 및 재교육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5) 사업내용

(1) 조기 퇴직자 및 실직자들을 위한 ‘인생3모작 정보센터’ 운영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진 시대이다. 직업의 변경주기가 빨라진 현실에서 전직을 위한 재교육 훈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처럼 되어버렸다. 원활한 전직을 위해 업종에 따른 개인의 능력과 요구사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재교육 훈련 안내가 가능한 특화된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표 4-15〉 인생 3모작 정보센터 운영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18년
사 업 비	■ 1,000백만 원(구축비 600백만 원, 운영비 400백만 원)
설치단위	■ 특별사·광역시, 도 단위(1곳) ※ 국가사업으로 시행
사업내용	■ 조기 퇴직자·실직자 의무적 등록 및 전문상담(심리상담 등) ■ 전직 훈련(재교육) 안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수료 후 취업 알선 등)

(2) 지역 내 ‘전직훈련 및 재교육 기술개발원(프로그램)’ 운영

현재 지역의 폴리텍 대학·사설학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직 훈련(재교육)을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여 양질의 훈련을 통한 효율적인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표 4-16〉 전직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18년 이후
사 업 비	■ 5,000백만 원(부지매입 등 연차계획) *폐교 등을 활용
설치단위	■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1곳) ※ 국가사업으로 시행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퇴직자 및 실직자) 전직 수요에 맞는 훈련 및 재교육 실시 ■ (일반시민) 평생능력개발 교육 실시 ■ (사설기술학원) 새로운 기술 및 제4차 산업혁명 기술지도(전수)

(3) 지역 내 특정분야 고숙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속운영

지역 내 특정분야에 대한 고숙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조기퇴직자 및 실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울산은 ‘플랜트 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전직 지원’, ‘신고리 원전 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전직 지원’, ‘제4차 산업 인력 양성·전직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4-17〉 지역 내 특정분야 고숙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속운영

구 분	내 용	
플랜트 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전직 지원	사업분야	■ 지역 내 신규 화학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사 업 비	■ 700백만 원
신고리 원전 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전직 지원	사업분야	■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인력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사 업 비	■ 500백만 원
제4차 산업 인력 양성·전직 지원	사업분야	■ 4차 산업 혁명 관련분야에 적합한 인력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사 업 비	■ 500백만 원

6) 주요성과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은 지역의 가장 핵심 산업인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업 퇴직자 및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 및 연관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 지역 산업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이를 계기로 조기퇴직자 및 실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평생능력개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자연스러운 훈련시스템으로의 태세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규모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조선업과 유사한 자동차, 반도체, 화학 산업 등 지역산업의 위기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위기 극복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할 수도 있다.

5.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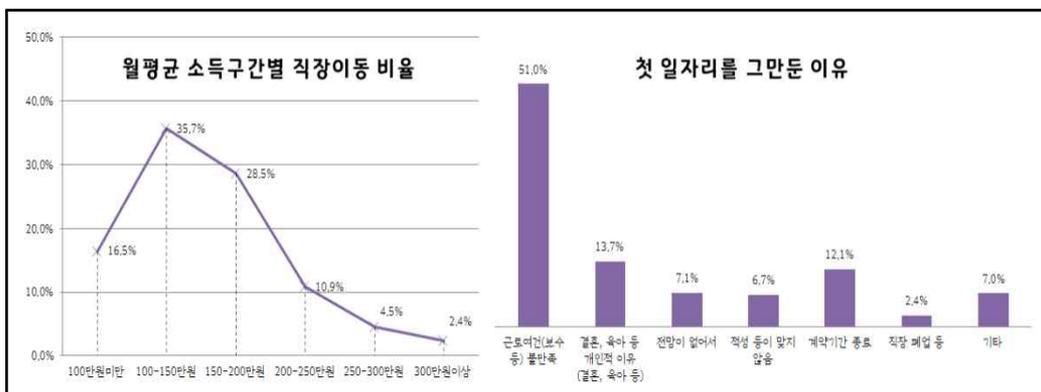
1) 사업목적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구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 및 퇴직자까지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하는 청년 통장’과의 연계 확대로 ‘구직-재직-퇴직’ 등 전 단계의 청년들을 지원한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는 ‘청년구직지원금’(5,000명),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는 ‘일하는 청년 통장’(10,5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20,000명), ‘청년복지포인트’(100,000명) 등을 제공한다. 일하는 청년 통장과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사업대상자와의 중복 수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중 17.3%만이 중복된다. 퇴직 중인 청년들에게는 ‘청년 연금’(10,000명)을 지원한다.

근로중인 청년들에게는 직접적인 임금, 자산, 복리후생 지원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장기근속 유도 인센티브는 대기업(9.4%)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중소기업(32.5%)의 1년 이내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림 4-8〉 월평균 소득구간별 직장이동 비율 및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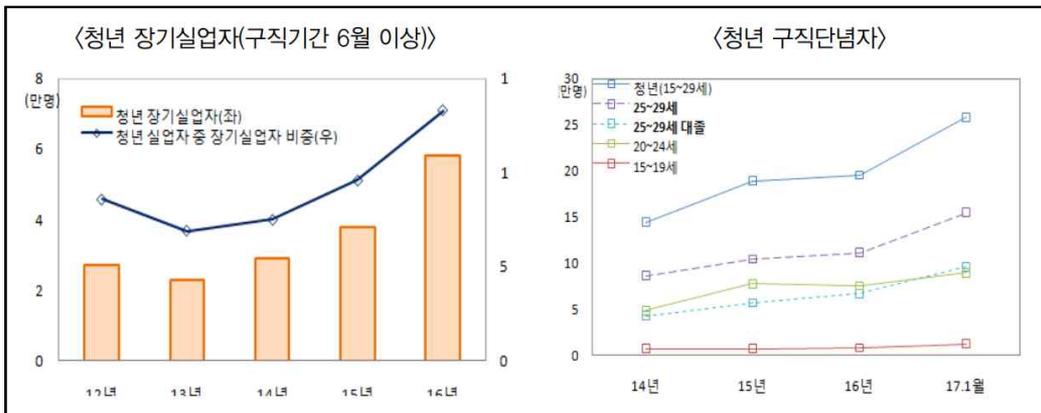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42

2) 추진배경

사업의 추진배경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 하고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하는 이른바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경기도의 청년 실업률(2017년 3/4분기)은 전국(9.3%) 보다 높은 10.3%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원인으로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프리터족(Free+Arbeiter)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프리터족은 지난 5년간 2배 증가(11.5% → 27.6%)하는 양상을 보였다(알바천국, 2017년 7월) 한국은행(2015)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림 4-9〉 청년 장기실업자, 구직 단념자 연도별 현황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43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17년 3월, 관계부처합동)

중소기업연구원(2015)은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는 전국 대비 37.2%로 일자리 미스매치의 경기도 집중화 현상을 보인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80.5%가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의 고령화 및 신입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0.3세(2000년)에서 44.6세(2013년)로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13). 중소기업 재직자의 고령화는 연평균성장률 감소로 이어진다. 3.9%(2000~2015년)였던 성장률이 1.9%(2016~2025)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청년층으로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 숙련 단절자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표 4-18〉 중소기업, 대기업, 이직 등 현황 비교

구 분	이직률	1년 이내 퇴사율	재직기간
중소기업	4.5%	32.5%	1.6년
대 기 업	3.0%	9.4%	11.2년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43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 '16),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1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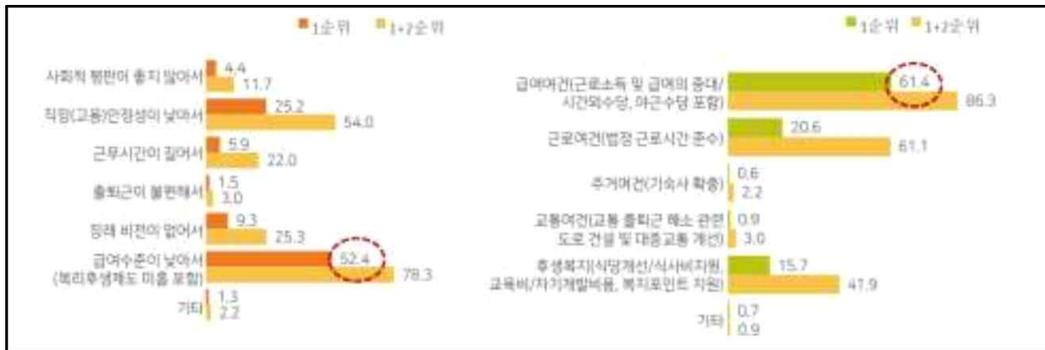
중소기업연구원(2017)은 중소기업제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4.9%라고 밝혔다. 청년층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사회적 평판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급여 인상, 둘째, 근로시간 준수, 셋째, 후생복지 등을 제시했다.

〈표 4-19〉 중소기업 인력 이직 시 비용 발생 현황

이직 시 매출액 감소	대체인력 1인당 교육훈련 및 채용 관련 부대비용
1인당 2.7억원(1개사 당 5.2억원)	4,600만원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43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 현황 및 장기 재직 활성화 방안(중소기업연구원, '14)

〈그림 4-10〉 중소기업 기피 등 설문조사 현황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43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자 인식조사('17. 7월, 1,084명)

경기도의 청년인구(25~29세)는 2017~2021년 7만5천명 증가하지만, 2022~2026년에는 55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2021년 이후에는 경기도의 청년 실업문제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청년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중앙정부 역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3) 사업개요 및 내용

〈표 4-20〉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현황

구 분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목 적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
유 형	연금전환 가능 저축보험(10년)	수시입출금 통장(2년)	복지포인트 지급(1년단위)
사업기간	2018~2028년(총 11년)	2018~2020년(총 3년)	2018~2019년(총 2년)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경기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경기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	월급여 200만 원 이하 재직자	월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
지원규모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선 발 (2018년)	1차(1월 선발) 3,000명 2차(5월 선발) 3,000명 3차(9월 선발) 4,000명	1차(1월 선발) 5,000명 2차(5월 선발) 7,500명 3차(9월 선발) 7,500명	1차(1월 선발) 30,000명 2차(5월 선발) 30,000명 3차(9월 선발) 40,000명
후보자모수	112,000여명	135,000여명	594,000여명
지원금액	10년간 매월 개인:도 = 1:1 매칭납부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선택)	720만원 (2년간 월 30만원)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①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연 80만원 ②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연 100만원 ③ 24개월 이상 : 연 120만원
선발기준	최소 근무조건(3개월 이상)		
	제조 우선 선발, 급여에 따른 우선순위	급여에 따른 우선순위	제조 우선 선발, 급여에 따른 우선순위
타 사업 중복 지원 및 수혜 금지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44-45
2017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4) 주요성과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청년들의 동일 직장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다. 청년들은 1억 원을 학업, 주거, 결혼, 육아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6.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1) 사업목적

전라북도 완주군은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완주시 청년층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청년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을 크게 5대 사업으로 나누었다. 첫째, 청년 취업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청년 자생일자리의 창출이다. 둘째, 청년이 일하고 놀고 먹고 사는 전반적인 삶의 문제를 개선한다. 셋째, 일자리·거주·양육·문화 등 청년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역할 확대 및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청년 유입으로 지역 인재와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2) 추진배경

완주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9.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2016년 말 기준). 반면, 2005년 27,170명에 이르던 청년 인구는 2016년에 23,493명으로 감소했다. 지역 인구 감소는 경제침체로 이어졌다. 완주시는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청년문제 중 일자리 문제를 따로 떼어내어 별개의 대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사업내용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지 않고 청년 삶의 질 및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시의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스스로 참여하여 청년공동체를 만들거나 기존의 인프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생적 청년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4-21〉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분야	■ 청년 삶의 질,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16년부터
사업비	■ 257백만 원(2017년)
사업내용	■ 청년이 행복하여 지역의 활력이 돈고 나아가 지역 성장을 목표로 도농복합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및 일자리 인프라 확충

〈그림 4-11〉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55

〈표 4-22〉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세부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① 창업지원	창업공동체	■ 3인 이상 공동체 5개소 23명 창업 지원(2017년~)
	창업 아이템 사업화	■ 사업비 : 30백만원, 공동체당 1천만원 이하
	청년몰 운영	■ 삼례시장 내 5개 점포 15명(2018년)
	창업공간 지원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2017년 말 준공 ■ 1인 창조기업 지원 : 4개실 6개팀 12명(2016년~) ■ 청년에게 협업 창업 공간(스페이스 코웍)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6개월 단위)
② 청년인턴제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	■ 6개소 6명(2017년) / 12명(2018년~) ■ 마을과 지역공동체, 로컬푸드 협동조합 등에서 인턴 활동 후 취업 ■ 재능 있는 청년 유입과 정착기회 제공,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여
	참여형 대학생 아르바이트	■ 30명(2018년~) ■ 직장체험과 사회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 제고 ■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군정 아이디어 제안 등 역할 기대
③ 청년 거점공간 '플래닛 완주' 조성(취업정보 공유공간)	찾아가는 취업상담 운영	■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상담(2018년~)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단 운영(45명) (2017년~)	청년 참여예산	■ 전국 군단위 최초 청년 참여예산 추진 ■ 5개 분과 : 일자리창업, 참여소통, 문화교육, 주거복지, 농업농촌 ■ 청년 참여예산 워크숍으로 정책 발굴 : 2018년 8개 사업 예산반영
	일자리 사업	■ 3개 사업에 50백만 원 지원 ■ 이서혁신도시 창업청년 허브 조성(창업공간+전문자문단) ■ 농촌 자립생활 위한 청년 수리공 육성(10명 목표) ■ 주민과 청년 멘토-멘티 구성, 청년성장(귀농귀촌 청년 지원)
⑤ 청년거주지원		■ 쉐어하우스, 귀농인의 집, 행복주택 등(2017년~) ■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으로 일자리탐색 및 취업(귀농) 지원
⑥ 기 타		■ 동아리, 베이비맘 택시, 청춘농사꾼 연금, 협업농장, 토요문화장터 등

〈그림 4-12〉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56

4) 주요성과

완주시는 5년간(2017~2021년)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목표도 설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공동체(창업공동체, 동아리, 협동조합 등) 육성과 청년 거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의 자생, 창업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인구 증가와 역할 확대로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다.

〈표 4-23〉 완주시 청년 지원 사업의 성과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100	373	428	423	433	443
청년인턴	174	6	42	42	42	42
창업공동체	83	5개소 23	5개소 15	5개소 15	5개소 15	5개소 15
1인창조기업	76	12	16	16	16	16
청년몰	15	-	5개소 15	-	-	-
사회적경제	50	10	10	10	10	10
청년귀농	1,702	322	330	340	350	360

자료: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57

7. 경상남도 김해시,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1) 사업목적

경남 김해시의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사업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치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배치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일자리 시장에서 나에게 맞는 보상 눈높이를 조정해줌으로써 구직자가 최선의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전국적으로 도입해볼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은 구직 활동 촉진과 구직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인프라 개선 방법으로 구인난 기업에게 구인기업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구인 조건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구인 성공 DNA 분석” 기반에서 발굴하여 추천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보상 눈높이 조정을 통하여 보상의 미스매치 해소와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배경

김해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7천 5백여 개의 기업이 있다. 시민의 평균연령이 37세에 불과해 매우 젊은 도시이지만 구인·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해시의 고용률은 64.1%, 실업률은 3.1%, 취업자 수는 260.5천명, 실업자 수는 8.4천명으로 나타났다.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생기는 일자리 미스매치이다. 김해시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이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① 신규로 창출하는 방법, ② 현재의 일자리 중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법, ③ 현재 일자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자리 창출 방법 중 ① 신규 일자리 창출 방법은 ② 현재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방법(③ 현재 일자리 인프라 개선 방법 포함) 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민간 기업의 마케팅에서 신규 고객 유치 비용(① 신규 일자리 창출)은 기존 고객(②+③ 현재 양질의 일자리 발굴) 유지비용(시간과 비용) 보다 약 5~8배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해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3) 사업내용

경남 김해시의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4〉 김해시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 김해시 관내 청년,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전 구직자와 구인자(기업)
사업분야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매칭 표준 모델 개발

〈표 4-24〉 김해시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내용(표 계속)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17년 6월 5일 ~ 2018년 6월 30일
사업비	■ 210백만 원(국비 30백만 원, 시비 180백만 원) ■ 기투자 60백만 원(국비 30백만 원, 시비 30백만 원)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김해시와 협업을 맺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인구직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워크넷 구인/구직란에 기재된 성공자의 취업 성공 직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기계학습)을 개발한다.

구직자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한다. 구인 기업에게는 구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맞춤형 구인 조건을 추천한다. 그러므로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보상과 정보의 눈높이 조정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국내·외에 현재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식의 맞춤형 구인/구직 일자리 추천 모델은 개발한 사례가 없었다.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직 상담사가 구인자의 프로파일(연령대, 성별, 학력 등)을 등록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직 확률이 높은 직무를 추천한다. 추천 직무의 일자리 추천 검색 결과를 토대로 급여, 근무가능 연령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구직자와 협의하여 직무를 결정한다. 결정된 직무 중 현재 구인 중인 기업을 조회한 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추천한다. 구인 기업 상담사가 구인 기업의 프로파일(매출액, 기업규모, 구인 직무, 급여 등 구인 조건 등)을 등록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인 조건에 의한 구인 성공 확률 예측과 구인 성공 기업의 구인 성공 DNA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인 직무별 급여통계, 수급 가능성, 시간 복지 통계, 후생 복지 통계, 구인 가능 거리 통계 등의 직무별 구인 성공 특성을 확인한다. 정보 기반의 구인 기업과 최적의 구인 조건을 협의 결정 후에 구인광고에 등록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일자리 상담사가 구인/구직 상담 요청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 데이터 세트만을 변경함으로써 국내 자치단체 전체,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해외 민간 등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통계청의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등 무료 패키지 사용으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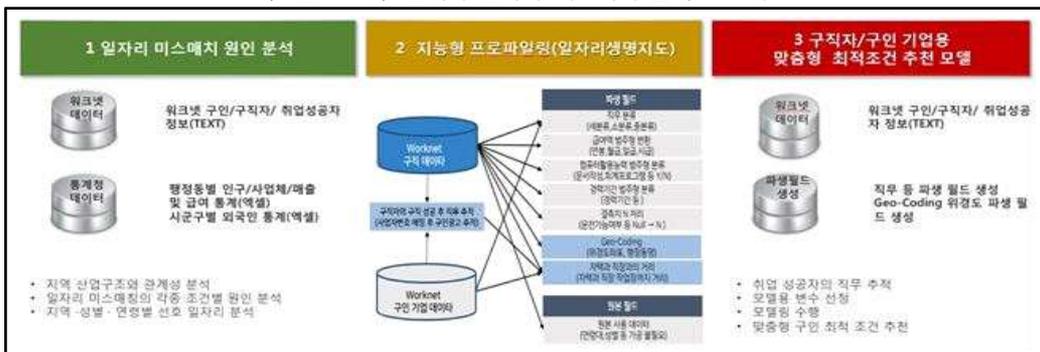
김해시는 본 사업을 통하여 만든 표준모델을 각 지자체에 무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해시 자체적으로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성 높은 사례를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고도화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4) 주요성과

김해시는「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사업으로 일자리 매칭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기존 성공률 15%). 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5년 내에 현재 보다 연간 70~8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해시의 계획대로 일자리 매칭 표준화시스템을 전국 225개 지자체 보급할 경우, 약378억 원²⁵⁾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사업은 맞춤형 추천으로 시장 상황에 맞는 현재의 일자리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무별 구인 성공 DNA 분석 기반으로 기업의 맞춤형 구인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로그램의 도입은 일자리 상담사의 평균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눈높이 조정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과정은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관련 의사결정의 속도가 증가했고 근속기간 증가로 이어졌다. 산업 생산성 제고 및 고용률 증가는 프로그램의 부가적 산물로 자리했다.

〈그림 4-13〉 김해시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프로세스



자료: 경상남도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25) 예산절감비용: 1개 지자체 당 프로그램 개발비용(210백만 원)의 80%

제2절 국외 사례

1. 미국, 「일자리 사업 WIRED」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사업인 WIRED(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가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방정부 노동부가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WIRED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 시스템 상의 구조적 문제, 행정구역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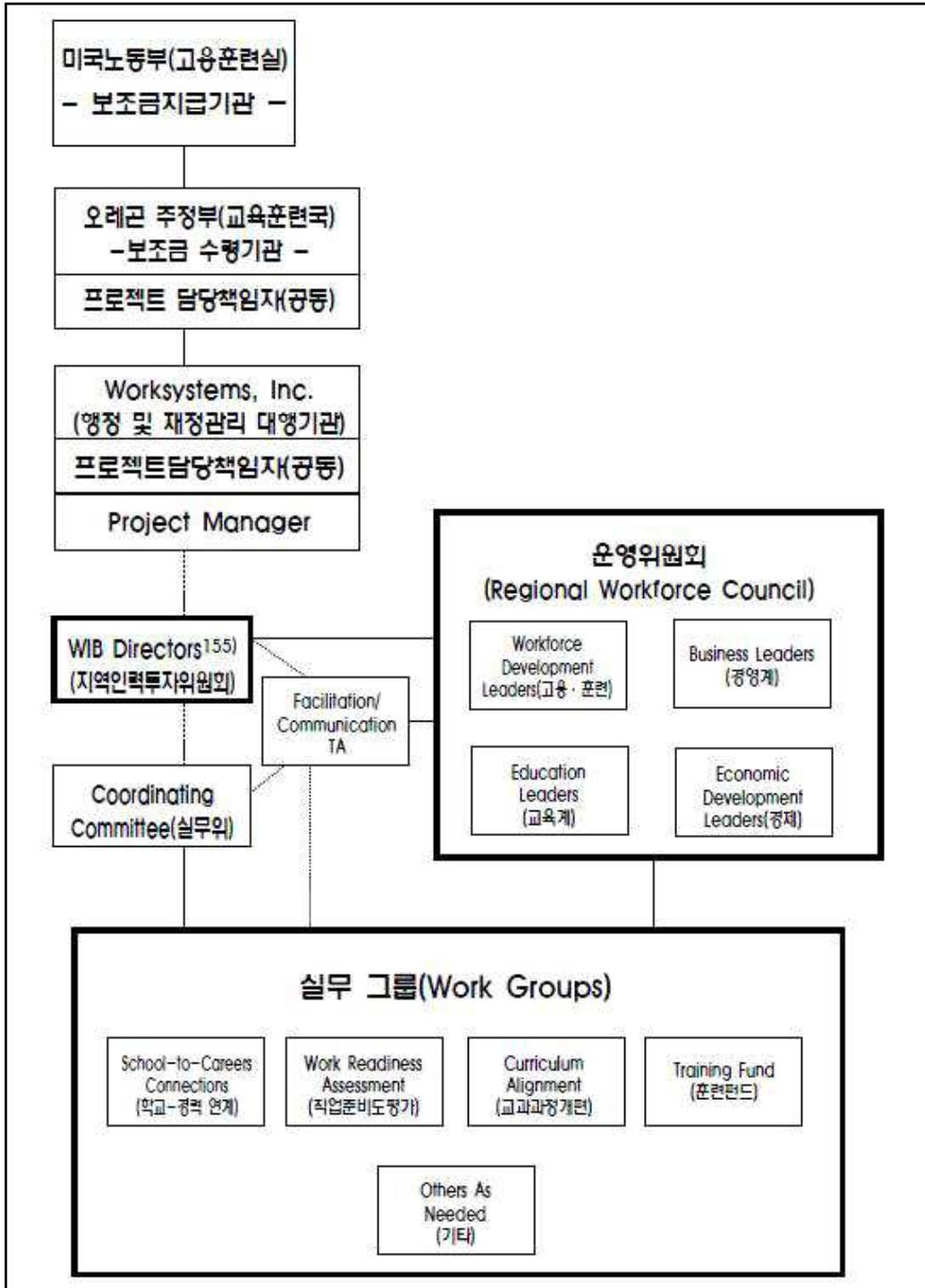
새로운 지역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산·학·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용 및 훈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혁신 전략이다.

국제 무역의 영향을 받았거나 단일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자연재해로부터 회복중인 지역 등 지역경제 전환 필요성이 강한 지역은 공모를 통하여 선별하였다.

WIRED 사업은 근로자 고용기회의 증대와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인력투자위원회(WIB)를 통하여 공공인력 투자계획을 경제개발 아젠다와 일치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1단계에 참여한 지역들에게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바이오/연료, 생명과학/의료산업, IT/소프트웨어 등 구체적인 산업을 선정하였다. 지역경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수요와 자산을 파악하고 창업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 교육훈련 사업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WIRED 사업은 거버넌스 구축, 지역노동시장 분석, 각종 인력개발사업 등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며, 6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지역경계를 넘어 유사한 경제적 특징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구역을 재구성한다. 2단계는 지역의 주요 자산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십 팀을 구성한다. 3단계는 지역의 자산 지도 작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SWOT 분석을 실시한다. 4단계는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경제적 비전을 공유한다. 5단계는 경제적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 6단계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실행에 옮긴다.

〈그림 4-14〉 미국 오레곤주 WIRED사업 거버넌스 및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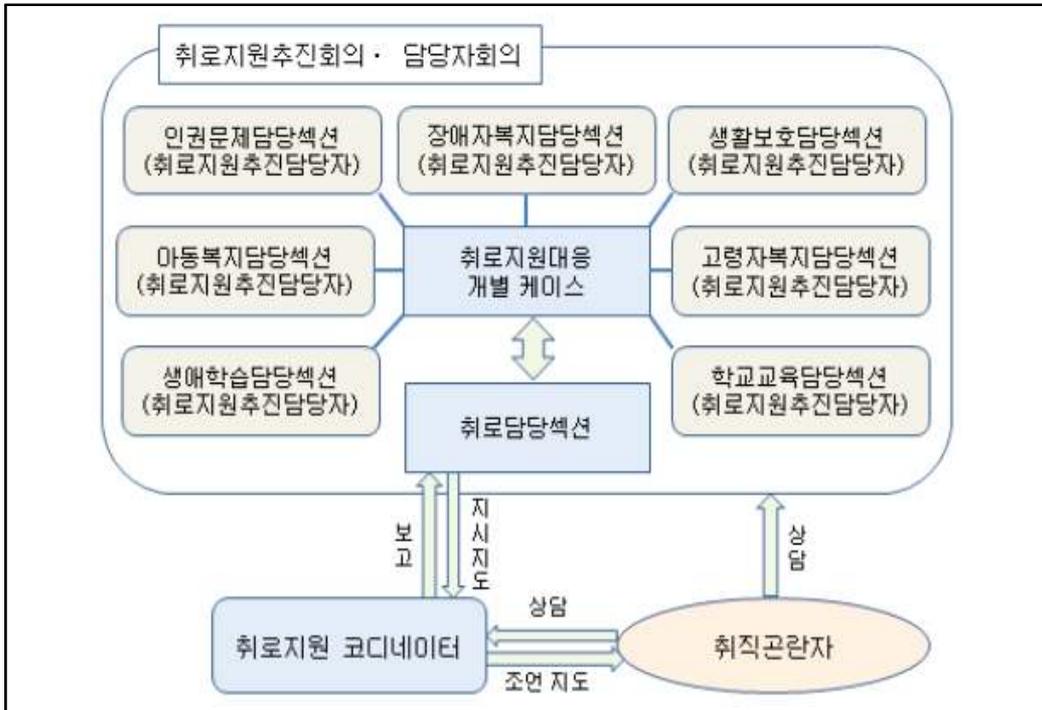
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2016), 「해의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pp. 86
이재홍(2010)

2. 일본, 「오사카 지역취로지원사업」

일본 오사카의 「지역취로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직이 곤란한 자들에게 취직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의 고용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오사카 지역은 피차별 부락민인 ‘도와(同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통상적인 매칭 이외에 부가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 4월 「지방분권추진일괄법」 시행에 따라 직업안정 행정은 중앙정부로 이관되었으며, 개정된 「고용대책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명기하였다.

2000년 3월 ‘자립 및 취로지원방책 검토위원회’의 정책 제언에 의거하여 오사카부(府) 이바라기시와 이즈미시에서 ‘지역취로지원사업’ 이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는 사업이 오사카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4-15〉 일본 지역취로지원사업 체계도 : 이즈미시 사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4),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pp. 196

오사카 지역취로지원사업은 취직 의사가 있으나 취로저해요인으로 취로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정촌이 고용 및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헬로워킹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협력 및 연계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자립과 취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인 사업주체는 시정촌이며, 시정촌 관계부서를 비롯하여 부(府), 중앙정부의 기관 및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府)와 시정촌은 지역취로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50:50으로 매칭하여 부담하게 된다.

지역취로지원사업 중 ‘취로지원 코디네이터’ 육성 과정의 경우 실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코디네이터를 육성, 배치하는 것이다. 코디네이터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육성할 임무는 부(府)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취로지원센터에는 취로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취직곤란자의 구직 및 고용에 관한 상담을 수행한다. 취로지원 코디네이터는 유관기관과의 조정 결과나 지원대상자 개별 사정을 감안한 ‘취로 서포트 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플랜 작성에 있어서 각종 지원 단체, 지역기업, NPO, ‘워크즈 컬렉티브(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지역 내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취로 서포트 플랜 작성이 완료되면 코디네이터는 필요한 기능 습득, 취업체험 기회 마련, 헬로워킹 및 사업소 취업 연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오사카 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정책 목표는 취직 곤란자의 취업이다.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하여 취직 곤란자를 대상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속성 및 니즈에 기반을 둔, 보다 세심한 지원메뉴를 제공한다. 취직곤란자 지원 거점시설인 ‘OSAKA 시고토관’을 운영하여 ‘청년층 취로자립 지원센터(니트 서포트 클럽)’, ‘Job카페 OSAKA’, ‘고령자 직업상담 플라자’, ‘Job플라자 OSAKA’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정촌의 경우 독자적으로 고용관련 시책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윈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무료직업소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독일, 「베를린 노동(Berlin Arbeit) 사업」

2012년 베를린 주정부는 지역노동시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베를린 노동’이라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 ‘베를린 노동’의 정책목표는 고실업의 축소, 좋은 일자리 원칙의 관철, 전문직 일자리 산업 입지화, 정책수단의 효과 최대화를 위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정부는 연방노동청 지역본부와의 협력프로그램, 전문 인력확보 및 양성,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이민자와 난민 통합, 노동관련 법·제도의 확립과 준수, 사회적 협의 활성화 등을 설정하였다.

1) 지역 노동시장 및 고용 정책

(1) 일자리 코칭(Job Coaching)

공공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코칭’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이들을 정규 노동시간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적정 직업능력의 이수 및 습득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들이 자문하고 지도한다.

지자체 단위로 존재하는 고용센터와 합의 하여 노동시장 통합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1차 코칭, 개인 프로필 및 활동계획 작성 지도, 활동계획에서 합의한 교육과정의 실행 및 동행 지도, 사후 자문과 일자리 중개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일자리 코칭 사업은 2012년 이후 주정부 산하 노동통합여성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이 실무를 총괄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물론 다양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도 병행한다. 코치 1인이 담당하는 참가자는 약 40명이다.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참가자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정 중에 확인된 성과지표를 통하여 코칭 최적화와 전문적 자문을 동시에 달성한다.

일반기업이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감당하기 힘든 일자리 지도 및 자문을 6개월 과정으로 지원한다. 고용센터-주정부 지원 하에 이뤄진 일자리 계약에 대한 자문, 관련 서류준비, 신규 채용자 고충상담, 실습 및 직업교육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문, 월 1,440 유로 이하 일자리에 취업한 신규채용자 현장 직무교육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비용은 주의 예산과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2) 취업 전후 직업훈련 및 숙련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QfB) 프로그램’은 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특화직업훈련이다.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매달 약 10개 정도 직업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 청년, 경력단절자, 학업중단자, 한부모 등에 속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업, 사회복지 및 교육, 안전 분야 등 전문직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취업 전 6개월간 직무교육과 훈련과정 등을 이수하게 된다. 공식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약 2/3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유럽사회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노동통합여성부의 예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노동자(시간제 및 미니 잡 등) 중에서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한다. 보조금은 고용계약 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되며, 최대 지급액수는 연간 1만 2천유로 규모이다. 주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1차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확산, 베를린 경제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보조금 수급조건은 기업의 소재지가 베를린이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최소 주 35 시간 이상 근무 전일제, 혹은 직업교육 등 사회법전(SGB) 관련 지원 대상 노동자가 해당된다.

(4) 공공지원 일자리사업

고용관계지원(FAV) 보조금 제도는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고령자의 취업에 대해 기업과 직업훈련기관에 임금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을 취한다. 베를린 지역 내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성이 강한 일자리를 주로 지원한다. 장기실업자 중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사보조', '공공교통서비스'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과도기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주정부의 보조금 액수는 총액임금의 최대 50%까지이며, 재원은 연방노동청(BA)과 주정부 고용센터가 공동출연 한다.

시민근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공익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정규직 일자리는 추가적으로 공공이익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지니고 있다. 시민근로 일자리 선정 시 인건비의 25%, 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조금 일부, 직업훈련 지원 및 동반자문 등을 주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5) 일자리 전시관(Job Points)

일자리 전시관은 2000년 덴마크 '잡 뷰띠크'를 벤치마킹해서 설립된 곳으로 유럽연합(EU)과 주정부 예산으로 2002년 베를린 노이퀼른을 시작으로 설치했다. 2015년 이후 일자리 전시관의 재정은 주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인력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약 4천개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구인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구비하여 단순노무직부터 전문직 까지 구직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적합한 예비일자리를 찾으면 상담 및 해당기업과의 면접을 추천한다. 현장상담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와의

상담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상담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숙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 기업은 일자리 전시관을 통하여 자유롭게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재를 추가 비용 없이 접촉하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 지역 인력 양성정책

(1) 직업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주정부는 학생들의 직업선택역량을 향상시키고 일반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보다 구체적인 직업 연계 및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체험(Komm auf Tou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고등학교 7학년이 자신의 직업지향성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베를린 주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원은 연방노동청(BA)이 49%, 주정부 산하 노동통합여성부가 51%를 분담한다. 1주일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워크숍, 직장생활 및 직업훈련 관련 특강, 직업체험 및 동반여행 등을 제공한다.

심화과정인 '직업지향성 베를린의 심화과정(BVBO)' 프로그램의 경우, 중·고등학교 7학년 부터 직업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총 5가지 교육모듈을 제공한다. 모듈1은 '직업영역의 소개 및 직장 체험', 모듈2는 '학교직업교육의 이수', 모듈3은 '기업현장교육 이수', 모듈4는 '심화직업훈련 준비', 모듈5는 '심화직업훈련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2)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민자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겪는 직업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베를린 지역 3곳의 역량센터(Kompetenz)에서 '전망을 지닌 직업훈련(AiS)'을 제공한다. 참가자는 자신이 가진 직업역량과 능력을 확인한 후에 직업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기업에서 교육받는 실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원서접수 및 면접을 위한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제공받는다. 이민자 출신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어학능력의 향상, 모국의 학업 인정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베를린 주는 직업교육의 지원지침을 바탕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장실습 일자리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지침을 통하여 기업이 수행하지 못한 교육내용과 질을 타 기업으로부터 전수받거나 공유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학업수준이 미진하거나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육 특별 과정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통합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준다.

베를린 주정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직업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여 직업훈련 일자리 계약의 중도파기율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직업훈련생들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멘토들은 무보수로 도와준다. 핵심적인 숙련 및 직업훈련에 대한 조언은 물론이고 자문도 수행한다. 20시간의 교양과정(멘토의 역할, 강의법, 직업훈련생의 권리와 의무, 청년생활, 다문화적 역량 등)을 이수하여 청년취업준비생들과 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일자리 계약의 파기율이 높은 호텔, 여행, 건설, 안전, 건강, 서비스 업종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베를린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BAPP)은 구 동독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직업협회, 노사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와 기업 및 단체 등의 계약에 의해 실습기업, 직업교육기관과 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에 따라 기간은 2년, 3년, 3년 6개월 등이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직업훈련실습일 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분적으로 분담하고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의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된다.

(3) 직업교육과 향상교육에 대한 자문

베를린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자문은 25세 이상 성인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직업교육과정 선택 전 자문기관을 통하여 직업훈련과정, 필요직업능력, 기타 준비사항 등을 상담하고 자문을 받는다. 자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내용을 지원한다. 산하 자문기관들의 이견과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주정부 산하 노동통합여성부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숙련향상을 위한 자문서비스도 수행한다.

4. 싱가포르, 「Skills Future Movement」

싱가포르의 Skills Future Movement는 싱가포르의 범국민 운동으로 2016년 출범하였다.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발족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진보와 그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하여 노동인구의 질(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대된 직업훈련 사업을 위기 종료 후에도 축소하지 않고 평생학습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직업훈련 사업(Skills Programme for Upgrading and Resilience, SPUR)이다. 이는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확대 개편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직업훈련이 단순 산업기술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커리어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는 평생학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최선의 교육, 훈련,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한다. 둘째, 변화하는 능력(Skills and Mastery)을 바탕으로 경력 개발과 사용주의 인식을 개선한다. 셋째,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싱가포르는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교육훈련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Skills Future Credit)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지정한다. 1인당 500 싱가포르 달러(약 40만원)씩 지급되었고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 지급 예정에 있다. 바우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공급자(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교육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셈이다. 국민들이 바우처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 사업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과거 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던 인력개발청(Work Development Agency, WDA)을 Workforce Singapore(WSG)와 Skills Future Singapore(SSG)로 분리하였다. 인적자원부가 총괄하던 직업훈련을 교육부로 이관한 것이다. 이는 SSG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WSG는 인력부 산하기관으로 직업훈련 이외의 일자리 사업(고용서비스, 고용보조금 등)에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교육부 장관을 초·중등교육 담당 장관과 고등교육·훈련·평생학습 담당 장관으로 이원화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후자가 Skills Future Movement를 담당하여 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대학정책과 직업훈련·평생학습의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간극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연간 약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8조원) 수준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통해 조달했다. 교육부 예산과 더불어, 노동자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Skills Development Fund, 그 밖에 Lifelong Learning Endowment Fund, National Productivity Fund, Skills Future Jubilee Fund 등을 통하여 기금을 조달한다.

〈그림 4-16〉 싱가포르 Skills Future Movement 관련 정부 조직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7),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 pp. 93

제3절 소결

국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사례 검토결과²⁶⁾ 저성장, 저물가 기조 경제상황, 인구감소, 고령화, 4차산업 시대 진입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도 지역 산업여건,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 「청년드림(Dream) 사업」의 경우, 지역 직무현장의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노동의 단절을 해소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였다.

부산 「청춘 드림카 지원사업」 사업의 경우, 서부산권 산단 청년근로자에게 전기차량 임차 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취업유도와 지역 중소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클린 에너지 부산’ 실현, 연관산업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순천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인프라 기반조성을 통하여 취업, 창업, 창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울산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은 조선업 퇴직자 및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 및 연관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지역 산업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경우,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다.

완주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의 경우, 도농노숙합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역 내 청년인구 증가와 역할 확대를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으로 일자리 매칭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렸으며, 특히 현재 일자리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근속기간 증가, 산업 생산성 제고 및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외 지방정부 일자리 우수사례 검토결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내 사례와 유사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실업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6)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미국 'WIRED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의 산·학·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용 및 훈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혁신 전략으로, 근로자 고용기회 증대와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일본 '오사카 지역취로지원사업'의 경우, 취직 의사가 있으나 취로저해요인으로 취로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정촌이 예산 매칭을 통하여 고용 및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부, 중앙정부 기관 및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노동(Berlin Arbeit)' 사업의 경우, 고실업의 축소, 좋은 일자리 원칙의 관철, 전문직 일자리 산업 입지화, 정책수단의 효과 최대화를 위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정부는 연방노동청 지역본부와의 협력프로그램,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산하 기초 지방 자치단체와 공조, 이민자와 난민 통합, 노동관련 법·제도의 확립과 준수, 사회적 협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싱가포르 'Skills Future Movement'의 경우,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2016년 출범하였다.

개인이 최선의 교육훈련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경력 개발과 사용자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5장 일자리 평가 모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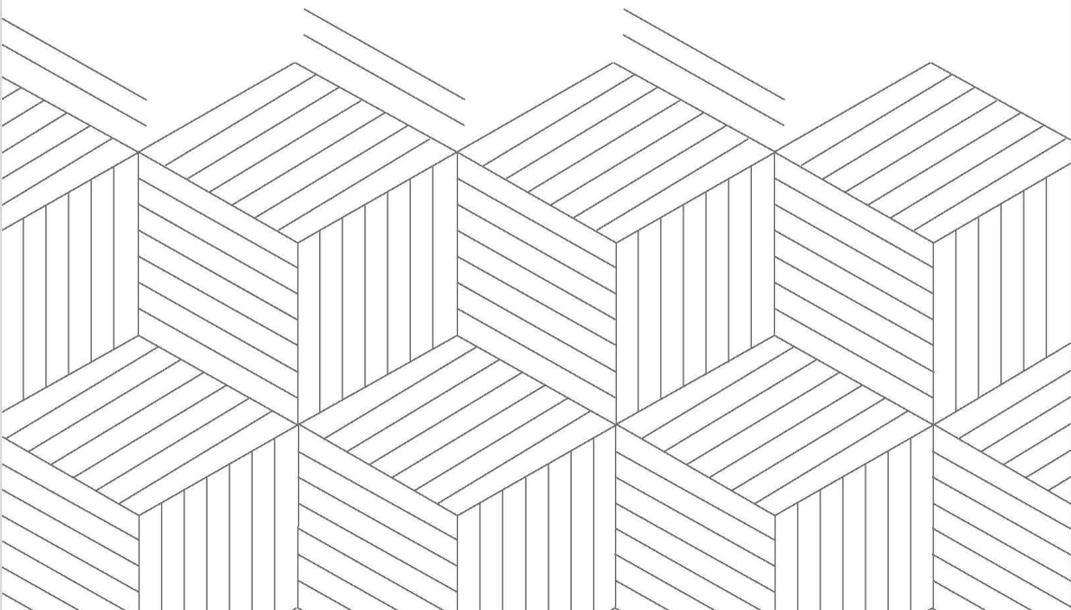
제1절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설계 개요

제2절 평가방법 및 대상 선정

제3절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설계

제4절 평가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일자리 평가 모형 설계

제1절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설계 개요

국내 전반에 퍼져있는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허락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예산 투입의 효과를 거둔 사업이 있다. 반면, 양과 질의 측면에서 투입대비 저조한 성과를 낸 사업도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비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측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수원시에서 지난 3년(2016~2018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평가할 때에는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등을 평가관점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른 적절한 평가지표는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라는 과정에 입각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구성한다. 이후,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성과지표는 사업이 추진되고 성과가 도출되는 과정에 따라 분류된다. 성과지표의 설정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이 지향하는 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등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투입지표는 예산, 인력, 기타 자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과정지표는 사업의 공정률을 나타낸다. 산출지표는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결과를 나타낸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의 수, 시민들의 사업 이용률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결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만족도 등을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취업률 또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만족도 등을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할 때, 어떤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과지표의 내용이나 측정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원시(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개별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조명하려 한다. 또한 평가지표 및 효율성 모형을 바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5-1>은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의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변수를 구성하여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표 5-1> 성과지표 선정 기준 및 원칙

구 분	내 용
관련성	■ 해당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함
왜곡된 유인	■ 바람직하지 않거나 낭비적인 행위를 촉발하지 말아야 함
영향파악 가능성	■ 해당조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성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함
명확성	■ 자료가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쉽게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함
적시성	■ 빈번하게 측정됨으로써 사업진행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단시간 내에 생산됨으로써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가져야 함
신뢰성	■ 원하는 정보에 맞춰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성과의 변화를 민감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비교 가능성	■ 현재의 성과를 과거의 성과나 다른 사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검증 가능성	■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성과지표가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수집비용 및 자료의 적정여부도 차이를 보임 ■ 가능한 저렴하고 자료의 적절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 ■ 사업의 집행과정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 고려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 「청년고용대책 성과정보의 적절성 분석모형 개발 연구」, pp. 23

제2절 평가방법 및 대상 선정

1. 평가방법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 표어는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각 지자체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 능률협회(KMA)가 주관하는『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자리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욱 분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인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 선정 기준이 정성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자체 마다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말해주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선정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려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일자리의 질과는 상관없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일자리 담당 공무원의 고과 점수와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매몰되어 있다.

동일한 일자리 개수여도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 1개월짜리 일자리가 같은 선상에서 취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창출한 일자리의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로 수원시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모형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투입대비 산출, 양질의 일자리(지속성)여부 등이 주요 지표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모형을 설계하고 수원시에서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대상 및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수원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

2. 평가대상 선정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2016년 15개 사업, 2017년 15개 사업, 2018년 17개 사업 등 총 47개 사업을 효율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2016년 일자리 지원 사업

2016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은 청년, 여성, 중장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의 연령과 상관없는 공통사업도 6개에 이른다. 2016년도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은 '새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이었다. 총 926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시비를 사용하여 진행된 사업이다.

〈표 5-2〉 2016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용 기간(개월)	예산(천원)	일자리 개수	등급
1	청년층 인턴사업	9월~11월	3	189,000	40	1.5
2	대학생 인턴사업(1차)	1월 4일~29일	1	152,000	117	0.75
3	대학생 인턴사업(2차)	7월 4일~29일	1	152,000	117	0.75
4	K-Move 스쿨	연중	정규직	372,000	79	3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연중	정규직	100,000	25	3
6	새희망 일자리	연중	3	2,560,000	926	1.5
7	넥스트 희망일자리	연중	7	26,034	6	2.25
8	사회공헌활동 지원	연중	4	622,200	445	1.5
9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중	4	334,000	81	1.5
10	보안네트워크 산업전문 엔지니어 일자리	연중	12	257,150	33	2.25
11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	연중	12	33,320	31	2.25
12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연중	12	56,000	29	2.25
13	수원형 청년 창업가 육성	연중	12	30,000	5	2.25
14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연중	12	40,000	5	2.25
15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연중	12	30,000	20	2.25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 해외취업 지원(K-Move 스쿨)’ 지원 사업이다. 국내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 일본에 진출시키는 사업이다. 현장(일본)에서 인터뷰했을 때, 현지에 취업한 청년들은 고물가, 불안정한 주거지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이다. 반면, 대학생 인턴 사업은 개월(1개월) 수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인턴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중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사업은 기술이 있는 전문가를 현장으로 돌려보내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역시 이런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추진된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은 15개 사업에 4,953,704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1,95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2017년 일자리 지원 사업

2017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은 2016년에 이은 계속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지속사업으로 이어졌다. 2017년 일자리 사업의 특이점으로는 ‘희망드림 아카데미’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희망드림 아카데미’는 청년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마인드와 대외 경쟁력을 갖춘 청년을 양성하고, 양질의 해외일 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K-Move 스쿨 사업과 유사하지만 수원시 자체에서 별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2017년에 25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인턴사업,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새희망 일자리,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일자리 창출 개수에서도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된 사업은 15개였다. 총 7,760,431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5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과 일자리 창출 수 모두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628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되었다.

〈표 5-3〉 2017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용기간 (개월)	예산(천원)	일자리 개수	등급
1	청년층 인턴사업	9월~11월	3	194,000	40	1.5
2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월 3일~31일	1	155,000	130	0.75
3	대학생 인턴사업 2차	7월 3일~30일	1	155,000	130	0.75
4	희망드림 아카데미	2017년 ~2019년	정규직	100,000	25	3
5	새희망 일자리	연중	4	2,057,500	762	1.5
6	넥스트 희망일자리	연중	7	123,294	10	2.25
7	사회공헌활동 지원	연중	4	622,200	324	1.5
8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중	4	320,000	70	1.5
9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연중	12	155,800	29	2.25
10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연중	12	57,880	30	2.25
11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연중	12	35,400	33	2.25
12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연중	12	26,357	18	2.25
13	스팀메이커 양성	연중	12	45,000	18	2.25
14	새일 공공일자리	연중	10	1,213,000	118	2.25
15	공공근로	연중	4	2,500,000	850	1.5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3) 2018년 일자리 지원 사업

2018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이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추진된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은 총 17개였다. 8,275,500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7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표 5-4〉 2018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용기간 (개월)	예산(천원)	일자리 개수	등급
1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월 4일~31일	1	158,000	120	0.75
2	대학생 인턴사업 2차	7월 2일~27일	1	158,000	120	0.75
3	대학생 인턴사업 3차	7.30.~8. 24.	1	158,000	120	0.75
4	수원 청년 내일로	2018~2020	정규직	1,415,000	76	3
5	새희망 일자리	연중	4	2,000,000	600	1.5
6	사회공헌활동 지원	연중	4	600,000	400	1.5
7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중	4	344,000	100	1.5
8	신중년 디딤돌 1차	연중	4	400,000	80	1.5
9	신중년 디딤돌 2차	연중	4	400,500	86	1.5
10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연중	12	56,000	24	3
11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연중	12	128,570	26	2.25
12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연중	12	31,430	25	2.25
13	사회복지서비스인력 양성	연중	12	55,000	15	2.25
14	새일 공공일자리	연중	10	2,020,000	132	2.25
15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중	12	63,000	20	2.25
16	도시 생태 농업	연중	12	78,000	30	2.25
17	청년 인턴	연중	3	21,000	100	1.5

자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내부자료(2019)

제3절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설계

모형을 설계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본고에서 모형을 설계하는 목적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제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는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이다. 효용극대화란 동일한 비용을 지출할 때 어느 쪽의 효용이 더 큰 것인가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비용극소화(cost minimization)이다. 비용극소화는 동일한 효용을 산출할 때 어느 쪽의 비용이 더 작은 것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둘은 목적함수가 무엇인지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관계를 경제학에서는 ‘쌍대성(duality)’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적용하면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동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는 사업에 투입된 금액이 적든가, 동일 비용을 사업에 투입했다면 일자리의 질이 좋든가 둘 중의 하나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부여한다. 비교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함수의 산술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별 사업의 값을 산술 평균 값으로 나누어주면 수치가 나온다. 이 수치가 적을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형설계에서는 일자리 개수를 투입 금액으로 나누는 방법과 투입 금액을 일자리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매우 작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여 정수가 도출되도록 한다. 이후 분모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분모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분모가 일자리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수에 일자리의 질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면 그 값이 작을수록 효율성을 나타낸다. 투입비용과 일자리 개수의 함수관계를 고려하여 $y = 2^{-t}$ 로 적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모형이 개별 사업의 평가 값이다. 평가 값의 수식은 아래의 식(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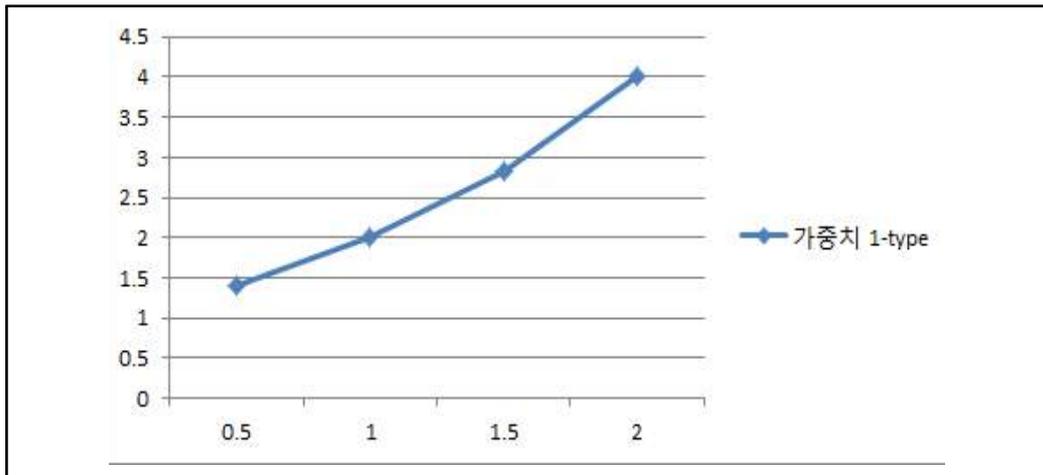
$$I = 2^{-t} \left(\frac{C}{J} \right) \dots \dots \text{식(1)}$$

식(1)은 개별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식이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 질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개월 수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몇 배 더 좋은 일자리인가를 측정하는 보조도구의 기능이다. 가중치는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일자리의 질에 따라 4단계로 적용한다. 4단계는 1개월, 2~5개월, 6~12개월, 정규직 등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가중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관 국장,

팀장들과의 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가를 논의했다. 총 5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회의를 통해 [1개월: $t=0.75$], [2~5개월: $t=1.5$], [6~12개월: $t=2.25$], [정규직: $t=3$]을 적용하기로 했다. 5가지의 가중치 유형 중에 3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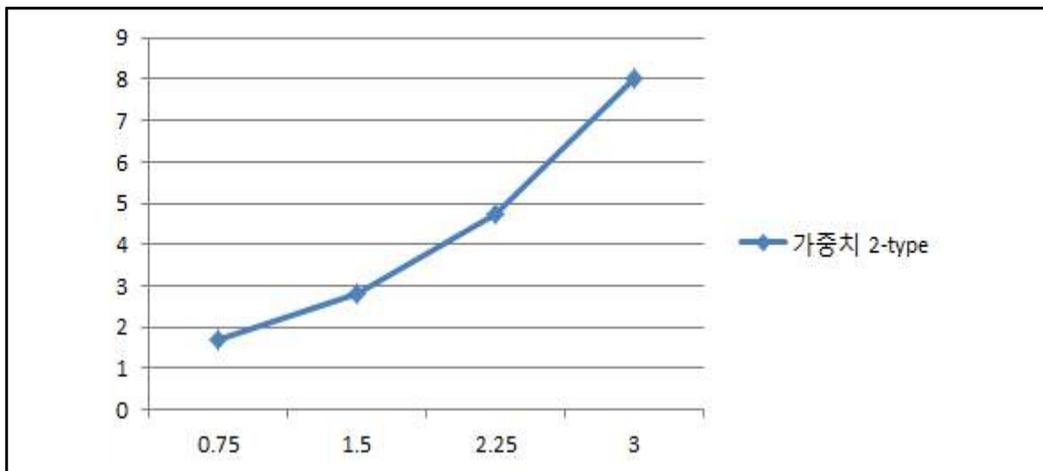
1-type을 적용하면 [1개월: 1.41], [2~5개월: 2], [6~12개월: 2.83], [정규직: 4]가 나온다. 정규직 일자리가 1개월 일자리에 비해 2.83배 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림 5-1〉 가중치 1-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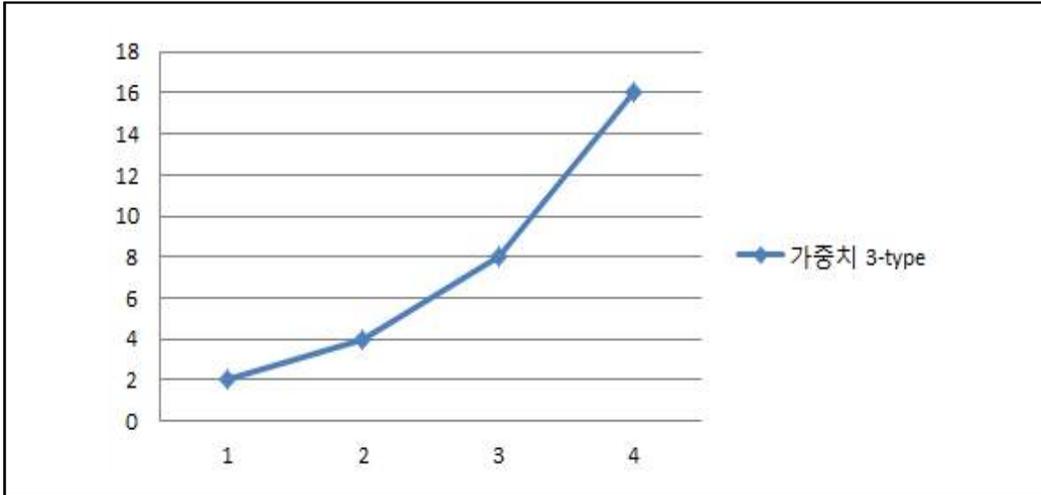
2-type을 적용하면 [1개월: 1.68], [2~5개월: 2.83], [6~12개월: 4.76], [정규직: 8]이 나온다. 정규직 일자리가 1개월 일자리에 비해 4.76배 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림 5-2〉 가중치 2-type



3-type을 적용하면 [1개월: 2], [2~5개월: 4], [6~12개월: 8], [정규직: 16]이 나온다. 정규직 일자리가 1개월 일자리에 비해 8배 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림 5-3〉 가중치 3-type



이제 기준 값을 도출해야 한다. 기준 값은 분석대상이 되는 50개 사업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이 모두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평균값을 기준 값으로 정했다. 기준 값을 도출하는 수식은 아래의 식(2)와 같다.

$$S = \frac{1}{n} \sum_{k=1}^n 2^{-t} \left(\frac{C}{J} \right)_k \dots \dots \text{식(2)}$$

식(1)을 식(2)로 나누어주면 아래의 식(3)이 된다. 식(3)의 값은 개별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지표를 의미하게 된다.

$$\frac{I}{S} \dots \dots \text{식(3)}$$

이 값이 작을수록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의미이다.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자리 개수를 많이 창출했다는 의미이다. 혹은 동일한 일자리의 질과 개수를 만들 때 적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의미이다.

제4절 평가결과

2016~2018년까지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수행한 단위 사업의 수는 총 50개에 이른다. 기준 값을 나타내는 $S = \frac{1}{n} \sum_{k=1}^n 2^{-t} \left(\frac{C}{J} \right)_k$ 의 값은 1,000.29가 도출되었다. 각 사업단위인 I 를 S 로 나누면서 각 식의 단위(원, 개) 등은 자동적으로 상쇄된다. 평가결과 47개 사업의 일자리 효율성 지수인 $\frac{I}{S}$ 값은 0.23~3.2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frac{I}{S}$ 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5-5>는 2016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2016년 수행한 사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은 ‘2016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 사업(0.23)’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업은 ‘2016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1.68)’으로 나타났다.

<표 5-5> 2016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용기간 (개월)	예 산 (천원)	일자리 개 수	효율성 지 수
1	청년층 인턴사업	9월~11월	3	189,000	40	1.67
2	대학생 인턴사업(1차)	1월 4일~29일	1	152,000	117	0.77
3	대학생 인턴사업(2차)	7월 4일~29일	1	152,000	117	0.77
4	K-Move 스쿨	연중	정규직	372,000	79	0.59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연중	정규직	100,000	25	0.50
6	새희망 일자리	연중	3	2,560,000	926	0.98
7	넥스트 희망일자리	연중	7	26,034	6	0.91
8	사회공헌활동 지원	연중	4	622,200	445	0.49
9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중	4	334,000	81	1.46
10	보안네트워크 산업전문인력인재양성사업	연중	12	257,150	33	1.64
11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	연중	12	33,320	31	0.23
12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연중	12	56,000	29	0.41
13	수원형 청년 창업가 육성	연중	12	30,000	5	1.26
14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연중	12	40,000	5	1.68
15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연중	12	30,000	20	0.32
16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연중	12	30,000	20	0.33

아래의 <표 5-6>은 2017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2017년 수행한 사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은 '2017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 사업(0.24)'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업은 '2017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2.59)'으로 나타났다.

<표 5-6> 2017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용기간 (개월)	예 산 (천원)	일자리 개 수	효율성 지 수
1	청년층 인턴사업	9월~11월	3	194,000	40	1.71
2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월 3일~31일	1	155,000	130	0.71
3	대학생 인턴사업 2차	7월 3일~30일	1	155,000	130	0.71
4	희망드림 아카데미	2017~2019	정규직	100,000	25	0.50
5	새희망 일자리	연중	4	2,057,500	762	0.95
6	넥스트 희망일자리	연중	7	123,294	10	2.59
7	사회공헌활동 지원	연중	4	622,200	324	0.68
8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중	4	320,000	70	1.62
9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연중	12	155,800	29	1.13
10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연중	12	57,880	30	0.41
11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연중	12	35,400	33	0.23
12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연중	12	26,357	18	0.31
13	스팀메이커 양성	연중	12	45,000	18	0.53
14	새일 공공일자리	연중	10	1,213,000	118	2.16
15	공공근로	연중	4	2,500,000	850	1.04
16	공공근로	연중	4	2,500,000	850	1.10

아래의 <표 5-7>은 2018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2018년 수행한 사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은 '2018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사업(0.26)'과 '2018 청년 인턴 사업(0.26)'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업은 '2018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3.22)'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서 매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난 사업은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사업'이었다. 그 원인은 사업비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은 여타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비용이 매우 적게 투입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사회복지서비스인력 양성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7> 2018년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용기간 (개월)	예 산 (천원)	일자리 개 수	효율성 지 수
1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월 4일~31일	1	158,000	120	0.78
2	대학생 인턴사업 2차	7월 2일~27일	1	158,000	120	0.78
3	대학생 인턴사업 3차	7.30.~8.24.	1	158,000	120	0.78
4	수원 청년 내일로	2018~2020	정규직	1,415,000	76	2.33
5	새희망 일자리	연중	4	2,000,000	600	1.18
6	사회공헌활동 지원	연중	4	600,000	400	0.53
7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중	4	344,000	100	1.22
8	신중년 디딤돌 1차	연중	4	400,000	80	1.77
9	신중년 디딤돌 2차	연중	4	400,500	86	1.65
10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연중	12	56,000	24	0.29
11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연중	12	128,570	26	1.04
12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연중	12	31,430	25	0.26
13	사회복지서비스인력 양성	연중	12	55,000	15	0.77
14	새일 공공일자리	연중	10	2,020,000	132	3.22
15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중	12	63,000	20	0.66
16	도시 생태 농업	연중	12	78,000	30	0.55
17	청년 인턴	연중	3	21,000	100	0.26
18	청년 인턴	연중	3	21,000	100	0.28

분석기간 동안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의 <표 5-8>과 같다. 전술하였듯이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모두 최상위에 기록되어있다. 다른 사업에 비해 일자리 개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의 단위 사업인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역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표 5-8> 분석기간 전체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평가결과

구 분	사 업 명	고용기간 (개월)	예 산 (천원)	일자리 개 수	효율성 지 수
1	2017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12	35,400	33	0.23
2	2016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12	33,320	31	0.23
3	2018 청년내일 채용공제	3	210,000	100	0.26
4	2018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12	31,430	25	0.26
5	2018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12	56,000	24	0.29
6	2017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12	26,357	18	0.31
7	2016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12	30,000	20	0.32
8	2017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12	57,880	30	0.41
9	2016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사업	12	56,000	29	0.41
10	2016 사회공헌활동 지원	4	622,200	445	0.49
11	2016 청년해외 취업 지원	정규직	100,000	25	0.50
12	2017 희망드림 아카데미	정규직	100,000	25	0.50
13	2017 스팀메이커 양성과정	12	45,000	18	0.53
14	2018 사회공헌활동 지원	4	600,000	400	0.53
15	2018 도시생태농업	12	78,000	30	0.55
16	2016 청년 해외취업 지원(K-Move 스쿨)	정규직	372,000	79	0.59
17	2018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12	63,000	20	0.66
18	2017 사회공헌활동 지원	4	622,200	324	0.68
19	2017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	155,000	130	0.71
20	2017 대학생 인턴사업 2차	1	155,000	130	0.71

구 분	사 업 명	고용기간 (개월)	예 산 (천원)	일자리 개 수	효율성 지 수
21	2018 사회복지서비스인력 양성과정	12	55,000	15	0.77
22	2016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	152,000	117	0.77
23	2016 대학생 인턴사업 2차	1	152,000	117	0.77
24	2018 대학생 인턴사업 1차	1	158,000	120	0.78
25	2018 대학생 인턴사업 2차	1	158,000	120	0.78
26	2018 대학생 인턴사업 3차	1	158,000	120	0.78
27	2016 넥스트 희망일자리	7	26,034	6	0.91
28	2017 새희망 일자리	4	2,057,500	762	0.95
29	2016 새희망 일자리	3	2,560,000	926	0.98
30	2018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사업	12	128,570	26	1.04
31	2017 공공근로사업	4	2,500,000	850	1.04
32	2017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사업	12	155,800	29	1.13
33	2018 새희망 일자리	4	2,000,000	600	1.18
34	2018 지역공동체 일자리	4	344,000	100	1.22
35	2016 수원형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	12	30,000	5	1.26
36	2016 지역공동체 일자리	4	334,000	81	1.46
37	2017 지역공동체 일자리	4	320,000	70	1.62
38	2016 보안네트워크산업전문엔지니어일자리창출사업	12	257,150	33	1.64
39	2018 신중년 디딤돌 사업 2차	4	400,500	86	1.65
40	2016 청년층 인턴사업	3	189,000	40	1.67
41	2016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	12	40,000	5	1.68
42	2017 청년층 인턴사업	3	194,000	40	1.71
43	2018신중년디딤돌사업	4	400,000	80	1.77
44	2017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10	1,213,000	118	2.16
45	2018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정규직	1,415,000	76	2.33
46	2017 넥스트 희망일자리	7	123,294	10	2.59
47	2018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10	2,020,000	132	3.22

제5절 소결

국내 전반에 퍼져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비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도구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평가할 때에는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과정에 입각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며,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이 지향하는 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개별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평가지표 및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조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모형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투입대비 산출, 양질의 일자리(지속성) 여부 등이 주요 지표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2016년 이후 총 47개의 일자리 사업을 효율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비용극소화(cost minimization) 등 목적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지수함수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비교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함수의 산술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개별 사업의 값을 산술 평균 값으로 나누어 주면 수치가 발생하는데, 이 수치가 적을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기준값 산출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47개 사업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모두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평균값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2016~2018년까지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수행한 단위 사업의 수는 총 50개에 이르며, 기준 값을 나타내는 $S = \frac{1}{n} \sum_{k=1}^n 2^{-t} \left(\frac{C}{J} \right)_k$ 의 값은 1,000.29가 도출되었다.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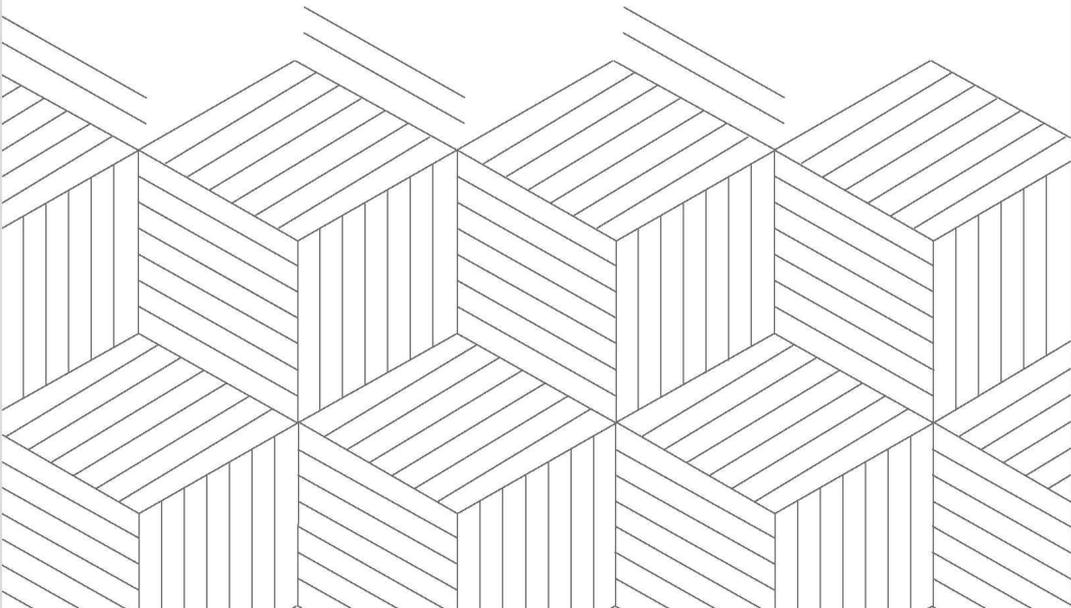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47개 사업의 일자리 효율성 지수인 $\frac{I}{S}$ 값은 0.23~3.2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다. 이 중

$\frac{I}{S}$ 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대상 사업 중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모두 최상위에 기록되어있다. 다른 사업에 비해 일자리 개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의 단위 사업인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역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일자리 사업은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기능수행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시장 내 공적 개입이자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에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이지만, 민간부문에서 한계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OECD 분류에 따르면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청년대책, 고용 보조금, 공공부문 채용, 장애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업 보조금, 조기퇴직 대책 등을 의미한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발생한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사전에 실업을 방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도록 재배치하고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등의 방법을 통하여 노동시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제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실현으로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추구한다.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산업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하며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사례 검토결과²⁷⁾ 저성장, 저물가 기조 경제상황, 인구감소, 고령화, 4차산업 시대 진입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도 지역 산업여건,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7)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광주 「청년드림(Dream) 사업」의 경우, 지역 직무현장의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노동의 단절을 해소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였다.

부산 「청춘 드림카 지원사업」 사업의 경우, 서부산권 산단 청년근로자에게 전기차량 임차 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취업유도와 지역 중소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클린 에너지 부산’ 실현, 연관산업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순천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인프라 기반조성을 통하여 취업, 창업, 창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울산 「울산형 일자리 전환(Shift) 프로그램」은 조선업 퇴직자 및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 및 연관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지역 산업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경우,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다.

완주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의 경우, 도농비축합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역 내 청년인구 증가와 역할 확대에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 「일자리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매칭 표준모델 개발 사업으로 일자리 매칭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렸으며, 특히 현재 일자리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근속기간 증가, 산업 생산성 제고 및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의 지방정부 일자리 우수사례 검토결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내 사례와 유사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실업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WIRED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의 산·학·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용 및 훈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혁신 전략으로, 근로자 고용기회 증대와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일본 「오사카 지역취로지원사업」의 경우, 취직 의사가 있으나 취로저해요인으로 취로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정촌이 예산 매칭을 통하여 고용 및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부, 중앙정부 기관 및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노동(Berlin Arbeit)' 사업의 경우, 고실업의 축소, 좋은 일자리 원칙의 관철, 전문직 일자리 산업 입지화, 정책수단의 효과 최대화를 위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정부는 연방노동청 지역본부와의 협력프로그램,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이민자와 난민 통합, 노동관련 법·제도의 확립과 준수, 사회적 협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싱가포르 'Skills Future Movement'의 경우,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2016년 출범하였다.

개인이 최선의 교육훈련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경력 개발과 사용자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응용할 부분을 발췌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전반에 퍼져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비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개별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투입대비 산출, 양질의 일자리(지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조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비용극소화(cost minimization) 등 목적함수를 적용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지수함수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비교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함수의 산술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개별 사업의 값을 산술 평균 값으로 나누어 주면 수치가 발생하는데, 이 수치가 적을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기준 값 산출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47개 사업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모두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평균값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2016~2018년까지 수원시 ‘일자리 정책관’에서 수행한 단위 사업의 수는 총 50개에 이르며, 기준 값을 나타내는 $S = \frac{1}{n} \sum_{k=1}^n 2^{-t} \left(\frac{C}{J} \right)_k$ 의 값은 1,000.29가 도출되었다. 평가결과 47개 사업의 일자리 효율성 지수인 $\frac{I}{S}$ 값은 0.23~3.2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다. 이 중 $\frac{I}{S}$ 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수록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대상 사업 중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모두 최상위에 기록되어있다. 다른 사업에 비해 일자리 개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의 단위 사업인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역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제언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 ‘5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청년창업자와 기술·경력·네트워크가 있는 퇴직 인력을 연결·지원해 주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일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도모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정책의 강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7월에는 ‘일자리 정책관’을 신설하였다.

특히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2018년 기준 지역 일자리 19만 9,924개를 창출하여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설계, 효용성 평가 문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원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오거나 현재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제고 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정책대상에 관한 원칙이고 사업의 성과 문제는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간 유기적 연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지표 설정 및 모형 구축 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유사 중복사업의 검토 및 사업 재조정, 두 번째로 사업간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기능 제고, 세 번째로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기존 사업의 예산 재조정 기능, 네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관리, 다섯 번째로 평가체계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0), 「청년고용대책 성과정보의 적절성 분석모형 개발 연구」, pp. 23
- 금재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의 중요성과 방향, 노동리뷰, 2010년 10월호
- 김주섭 외 7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연구 : 2008 고용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 '16),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16) 등
- 서울노동권익센터(201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pp. 86
- 윤윤규 외 7명(2010),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 방법론, 설정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각범(1989),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시장」 자본주의 경제와 노동시장, pp.9
- 이규용(2005),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12.27-44. 한국노동연구원.
-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pp. 8-57
- 장신철, OECD의 임시직 개념과 각국의 규제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7, [2011]
-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 현황 및 장기 재직 활성화 방안(중소기업연구원, '14)
-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17년 3월, 관계부처합동)
-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자 인식조사('17. 7월, 1,084명)
- 통계청, 2017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한국개발연구원(2017),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 pp. 93
- 한국노동연구원(2014),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pp. 19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pp. 6-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pp. 232
- 수원시, 2019,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쾌거 보도자료, <http://www.suwon.go.kr>

〈영문 자료〉

- Ehernberg & Smith, 1997
- Geroski, Gregg & VanReenen, 1995

〈웹페이지〉

경상남도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광주청년드림 공식홈페이지(<http://gj3dreams.modoo.at>)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uwonbic.kr>)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전라남도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구글 이미지 검색(<http://www.google.com>)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ob Evaluation Model in Suwon

As for the job issue, it is shifting from the passive point of view that how would employ the unemployed in the past to the active point of view that enhance the flexibility and coordination of the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OECD classification, it means that active job creation policies are included that job placement, vocational training, youth policies, employment subsidies, public sector hiring, and measures for the disabled.

Job policy within the region is to create high quality jobs and to seek in resolving polar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realizing welfare through jobs.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takes into account loc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job which demands is nee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network and a customized problem-solving metho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best practice cases of local governments, it was investigated that various job projects are being planned and promoted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industrial condition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In spite of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low growth, low prices, low population, aging population, and entry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se study of job provincial governments abroad, it is found that it is shifting to a proactive policy stance that prevents unemployment in advance. It is similar to domestic cases such as strengthening the labor market's flexibility and coordination ability. It is necessary to extract and apply parts to be applied in reference to domestic and foreign best practices when promoting the job policy in Suwon.

This study developed evaluation indicators and models in consideration of input-to-input and quality jobs(continuity). Based on this study, evaluation was

conducted to highlight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job project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local job projects.

The objective function was applied for efficiency analysis and weighted in the form of exponential function. For comparison, the arithmetic mean value of this function was used as a reference. Each business is divided by the arithmetic mean value because the function generated a number.

In calculating the standard value, the average value was set as of 47 projects to be analyzed. And the average value was set as the standard value on the premise that all job creation and support projects were promoted by the Suwon Job Policy Offic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unit projects undertaken by the 'Job Officer' in Suwon City from 2016 to 2018 totaled 47. The reference value was 1,000.29. Job efficiency index values ranged from 0.23 to 3.22. In detail, it was found that all career-breaking women's job support projects were recorded at the top.

It is very important to set up evaluation indicators, model design, and utility evaluation for policies and supporting projects to create job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riteria for the promotion of existing or new business needs and performance measures. The necessity of job policies and supporting projects is the principle of policy subjects. And the issue of performance is the discussion of policy instruments.

Policies and Support for Job Cre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jobs that created through projects and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rganic linkages and follow-up between policy instruments are needed. A regular evaluation and reflux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 evaluation system, such as setting up evaluation indicators and building a model.

| 저자 약력 |

조용준

경제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nay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불평등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이남일

철도경영정책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slni6214@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형 자전거전용차로 도입 및 효과분석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